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2012 Vancouver 총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강유순 (약학 69)



Welcome to

EWHA VANCOUVER 2012

November 1 - 4, 2012

Hilton Hotel Metrotown



교훈

이화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 이념들은 진眞, 선善, 미美 라는 간결한 표어로 정의한다.

풍부한 지혜와 지식, 아름다운 덕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지닌 인성교육은 이화가 추구하는 전인교육 이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가 최상의 가치로 삼아 온 진, 선, 미는 하늘에 속한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이화의 교훈은 1930년 무렵 당시 문과 교수이던 김상용 선생이 간결하고 명확한 '진, 선, 미'를 제안하였고, 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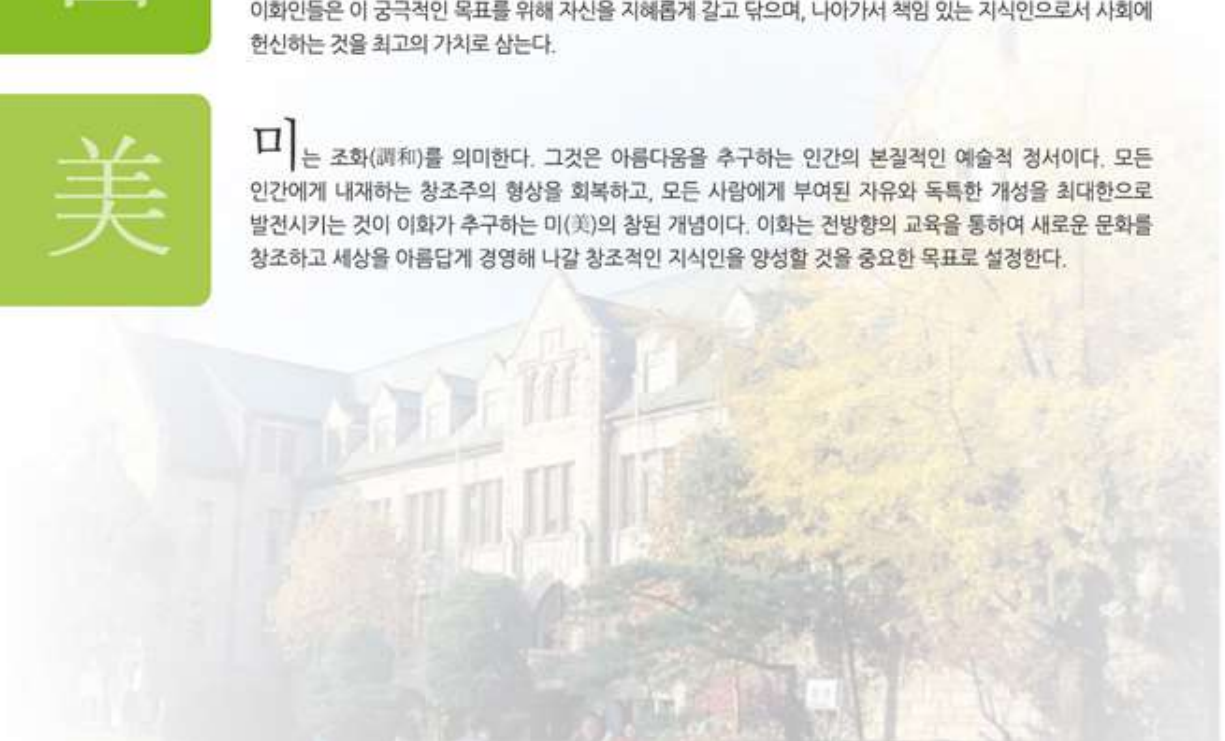
진은 지(知), 즉 학문의 전당으로서 이화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가치를 나타낸다. 대학이 지식의 탐구를 게을리하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만다. 더구나 지혜의 원천이며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한 이화여자대학교는 지식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최대한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문 연구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선은 덕(德)이다. 지식은 인간에게 선하게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지고지순의 아름다운 덕성, 그것은 사랑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국만리 타향의 벽안의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데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며, 공동체 사회와 인류사회의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염원이다. 이화인들은 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자신을 지혜롭게 갈고 닦으며, 나아가서 책임 있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미는 조화(調和)를 의미한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예술적 경서이다. 모든 인간에게 내재하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자유와 독특한 개성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화가 추구하는 미(美)의 참된 개념이다. 이화는 전방향의 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해 나갈 창조적인 지식인을 양성할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Contents 차례

인삿말

- 2 이화여대 총장
- 4 총동창회 회장
- 5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 6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7 년도별 연례회의 주최지회

8 총동창회 소식

10 수필, 시

22 2011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24 지회소식

38 북미주 지회장 명단

39 가 불만한 밴쿠버 명소들

40 2012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스케줄

EWHA 2012 VANCOUVER

총장 축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 선 옥

“도전과 개척, 섬김과 나눔의 동창회”

사랑하는 북미주 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음이 짙게 드리운 6월의 이화 교정에서 북미주 동창 여러분께 그리운 인사를 전합니다. 작년 가을 보스턴에서의 만남을 잠시 떠올려보니, 폭설과 정전이 있었지만 이화 동창들의 모교 사랑에 한없이 따뜻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가을 밴쿠버에서의 만남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강유순 회장님과 밴쿠버지회 동창 여러분께도 특별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126년 전, ‘여성이 여성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생각은 분명 놀랍고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의 역사로 시작된 이화는 늘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권장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에게 금기시되었던 수많은 분야에서 ‘최초의 여성’이라는 수식어를 단 이화인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아직도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역사와 사회 발전을 위해 여성 리더십을 요청하는 시대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데는 우리 사회 전 구성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 이화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Ewha, Where Change Begins”라는 슬로건에 나타나듯이 이화는 세상을 위한 변화가 시작되는 곳 이었고, 또한 현재도 그러한 변화를 지향하는 곳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화는 창립 126주년을 맞으며, 이화가 세계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지성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화가 글로벌 여성 리더 교육의 허브가 되도록 도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화의 스승님들께 배웠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이화에서는 좌절을 제외한 모든 경험이 허락되니 마음껏 도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화와 이화의 학생들은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여성과학자를 배출하고, 세계 최초로 여자대학에 공과대학을 설치한 이화는 앞으로 이공계 산학협력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 분야 노벨상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 교육과 연구의 요람인 종합과학관의 공간이 대폭적으로 확장되어 얼마 전 ‘종합과학관 D동’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창립기념일인 5월 31일에는 다국적 화학

기업 스펀지의 투자를 유치해 건립하게 된 산학협력관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미래를 열어갈 여성과학자를 선도적으로 양성하고 이화에서 최초의 과학분야 노벨상에 도전하고자 하는 시도에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화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는 앞서 말한 '도전과 개척 정신'이 있고, 또 다른 한 축에 '섬김과 나눔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이화의 역사를 보면, 한국 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추어 '나눔'의 문화가 훨씬 일찍부터 성숙하게 무르익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립 초기부터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희생과 봉사, 섬김과 나눔을 강조해온 이화의 앞서간 교육 덕분이 있을 것입니다.

북미주 동창들도 큰 호응을 보여주셨던 '선배라면 캠페인', 법조계와 의료계 동창들로 시작된 '이화인의 재능기부 프로젝트', 비움을 통해 더 큰 나눔을 실천하는 '이화인의 나눔가게', 그리고 사회봉사센터의 다양한 학생 봉사 활동을 비롯한 이화의 나눔 행렬이 아름다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화의 나눔은 한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벌써 7년째를 맞이한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는 이화의 창립자인 스크랜튼 여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화가 축적한 교육역량을 세계의 여성들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제3세계의 우수한 여성인재를 이화에서 교육시켜 본국의 여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 EGPP를 통해 지금까지 29개국 129명이 교육을 받아 이화의 정신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제3세계 공익부문 여성활동가를 위한 EGEP(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가 작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사회복지학과(당시 사회사업과)를 설립한 이화여대가 캄보디아에 지난 3월 '이화사회복지센터'를 개소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화는 '봉사와 헌신', '나눔과 섬김', '사랑과 정의', '청렴과 배려'의 이화정신을 전 지구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 세계의 여성 리더들을 위한 지성공동체가 될 것이며, 그들의 역량을 키우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화의 비전에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언제나 이화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제나 북미주 동창 여러분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북미주 동창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이화의 동창입니다.

이번 가을 밴쿠버에서 열리는 북미주 지회연합회에서 북미주의 모든 동창들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동창 여러분의 변함없는 이화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동창회장 인사말



2012년도 밴쿠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기대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제 16대 총동창회장 조충남입니다.

보고 싶은 동창님들께 지면을 통해 먼저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보스턴의 조수현 지회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다녀 온 지도 벌써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밴쿠버에서 개최하게 될 2012년도 총회를 기다리며 지회연합회 동창님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 마음이 설렙니다.

그동안 동창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작년에 저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하고 1만 여 명의 동창님들이 북미주 각 지역에서의 대단한 활동에 또다시 이화가 가진 큰 힘을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이화인이 하나가 되었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Candle Light Evening Party는 앞으로 오랫동안 추억의 창에서 고개를 내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16대 총동창회장의 부름을 받고 정말 잘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잠을 줄이고, 좋아하는 운동연습을 줄이면서 동창회 일에 성심성의를 다하였지만 동창님들을 섬기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현직으로 일하던 의사가 병원을 한 달에 반 이상 비우는 것이 환자에게는 미안하였으나 동창회의 다사다난함의 매력에 빠져 호기심과 기쁨과 보람을 느낀 1년이었습니다.

지난 3월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1년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2012년도 세계회를 발표한 후 저의 첫 전에는 하나님의 '충성스런 딸아 애썼다'는 말씀이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아 황송하면서도 스스로 마음한 구석 기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동창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부모님, 은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기도의 덕을 받았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진 재능을 주위에 나누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의 혜택이 전무한 아프리카 오지에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섬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행복해지려면 섬기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섬기되 불평하지 말고, 매사를 감사하며 자신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마음으로, 댓가 없이 섬기면 스스로 행복이 찾아온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총동창회는 올해 이화 창립 126주년을 맞이하여 동창님들의 자녀와 손주의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거닐며 그림그리기 대회를 처음으로 지난 5월 12일에 개최하였는데 교정의 푸르름 속에서 열린 진정한 이화 가족들의 봄나들이였습니다. 특히 젊은 동창님들이 오랫동안 잊었던 모교를 방문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고 저도 크게 감동 받았습니다.

또한 언제나 감동으로 울먹이게 하는 메시아 공연과 126년간 이화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찬양제를 마쳤으며 앞으로 제 19대 국회에 등원한 이화동창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는 모임과 50여개 과와 국내 지회가 같이 마련하는 큰바자회, 총동창회와 모교의 최대 행사인 5월 31일 창립기념일 및 동창의 날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임원들은 동창의 날에 참석한 해외 동창님들을 모시는 작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해 강유순 지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쁨 중만 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밴쿠버에서의 만남에 많은 동창님들을 꼭 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밴쿠버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화 동창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년 5월 밴쿠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2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을 맡게 된 강(오)유순,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역대 회장단과 이사님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이루어 놓으신 기반 위에 부족한 제가 이런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학으로 우뚝 선 우리의 모교 이화여자대학교를 설립하신 메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 선교사님의 발자취와 인재 양성에 앞장섰던 김활란 박사님의 업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이화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스크랜튼 여사는 53세가 되었을 때 미 감리회 해외여성교회(W.F.M.S.)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한국에 왔습니다. 1885년 6월, 서울에 온 이후 노약자 등 소외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특히 여성들에게 근대적 교육을 통하여 자기 계발을 도모하도록 힘썼습니다. 그리고 1886년 5월 31일, 한 사람의 학생을 상대로 한국 여성교육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이화학당을 설립해 여성 신교육의 터를 닦았습니다.

이화의 큰 스승인 김활란 박사님은 한국 여성 교육의 고삐를 움켜쥐고 시련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일생 동안 56회의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했을 만큼 왕성한 해외활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둠던 시대에 희망의 등불을 들고 앞장서서 걸어간 선각자였습니다.

북미주 전체에 흩어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화인들은 스크랜튼 여사의 사랑의 정신을 기억하며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활란 박사님의 선각자적인 발자취를 기억하며 이화의 여성 지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리라 믿습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화 동창 모두, 이 두 분의 정신을 이어 받아 서로 협조하고 단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도록 노력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저희 밴쿠버 지회 동창들은 한마음으로 11월 총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캐나다의 보석같은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휘슬러와 1,000에이커의 산록숲을 자랑하는 스태리 공원 등이 있는 아름다운 밴쿠버에서 김선옥 총장님, 조중남 총동창회장님을 모시고, 보고 싶던 선배와 동기, 후배들을 만나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 총회를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남기시길 바랍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화동창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장 강유순 (임락 69)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인사말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조수현 (수학 76)

북미주의 모든 이화동문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년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장 조수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아름다운 삶을 힘차게 살고 계신 이화여대 동창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작년 가을 보스턴 총회에 폭풍이 지나가는 험한 일기 속에서도 성황을 이뤄 주신 여러 동창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했던 점도 모두 감싸 주시고 역시 이화인들의 모임은 이렇구나, 감탄을 해주신 것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보스턴 지회에서 애써 주신 임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신 총장님, 총동창회장님과 여러 지회장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교는 한국여성과 세계여성 교육의 산실의 역할을 더욱 더 실질적이고 효과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진취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126년을 지나면서 한결같이 이화의 기치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찬 역동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화여대 동창을 대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크고 작은 지회에서 새로운 동창을 환영하고 유학생 동창들을 격려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회마다 이화여대 국제재단에 크고 작은 장학금을 설치하고 세금 공제가 되는 기금을 모으는 일도 하십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북미주의 모든 동창들이 지회 중심으로 하나 되고 또한 연합하여 모이는 한 단체가 되어 환영할 날을 기대합니다. 각 지회들이 연합회로 모인다면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북미주의 모든 이화동문들을 환영하며 동참하실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음을 확실히 합니다. 언제나 지회의 대표로 또는 회원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모교 총동창회 회칙에 나와 있는 대로 조직된 우리 북미주 지회연합회는 북미주의 유일한 동창 단체로서 모교의 총동창회, 모교, 모교의 이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인정해 온 연합회 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가을과 겨울이 더욱 아름답다는 캐나다의 록키 산맥 관광을 추천합니다. 밴쿠버의 아름다움을 함께 만끽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세요. 말아서 수고하여 주신 강유순 회장님과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감싸 주며 사랑을 베푸는 화목한 모임을 기대합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큰 힘을 발휘하시는 동창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이화 125주년을 축하하는 케이크 앞에서 >

년도별 연례회의 주최지회

년도	주최 지회	지회장	졸업	전공학과
1976	워싱턴 디씨 지회	김정자	62	가정학
1977	대뉴욕 지회	이해경	50	피아노
1978	시카고 지회	전신애	65	영문학
1979	대뉴욕 지회	장한희	53	기독교학
1980	디트로이트 지회	김신형	49	가정학
1981	남가주 지회	김성자	62	교육학
1982	시카고 지회	최순자	66	의학
1983	대뉴욕 지회	조 언	61	약학
1984	필라델피아 지회	장창희	62	가정학
1985	워싱턴 디씨 지회	한순정	59	서양화
1986	북가주 지회	이영희	62	교육학
1987	대뉴욕 지회	이부자	60	사회사업
1988	토론토 지회	여정자	67	기독교학
1989	시카고 지회	최경혜	60	법학
1990	남가주 지회	이희성	59	영문학
1991	북가주 지회	최충자	62	사회학
1992	디트로이트 지회	김정숙	62	의학
1993	휴스턴 지회	임예자	65	사학
1994	대뉴욕 지회	임병대	60	교육심리학
1995	워싱턴 디씨 지회	오성미	64	영문학
1996	보스턴 지회	김경애	70	의학
1997	토론토 지회	정인영	68	물리학
1998	애틀란타 지회	김은숙	68	사회학
1999	시카고 지회	홍미혜	64	사회사업
2000	남가주 지회	김대훈	66	회학
2001	디트로이트 지회	차승순	70	기악
2002	울랜드 지회	하명숙	66	체육
2003	북가주 지회	강영자	64	기독교학
2004	휴스턴 지회	김성혜	72	식품영양학
2005	클리블랜드 지회	이선희	70	교육심리학
2006	토론토 지회	강선희	67	교육학
2007	대뉴욕 지회	최성남	70	약학
2008	시애틀 지회	이정형	63	약학
2009	덴버 지회	이미옥	68	국문학
2010	남가주 지회	오명애	74	장식미술
2011	보스턴 지회	조수현	76	수학
2012	밴쿠버 지회	강유순	69	약학

총동창회 소식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이 준 깊은 감동

지난 4월 28일(토) 오후 4시, 7시 두 차례에 걸쳐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이 모교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날 공연은 모교 창립 126주년을 맞아 열린 총동창회 행사의 하나로 지난 2003년 초연한 후 올해로 9회 째이다.

조종남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리허설을 비롯하여 네 번 공연을 보면서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 이슬이 맺히는 감동을 받았다"면서 "그것은 아마도 신은 경교수께서 부군이신 목사님과 영혼을 붙여 놓으며 기획한 무용에 그 제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연습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공연팀을 치하하였다.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은 2004년 기독교 문화 대상을 수상하였고 미국 보스턴과 뉴욕 등지에서도 성황리에 공연되어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국내에서도 연세대학교 대강당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도 공연되어 작품성의 높은 평가와 함께 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공연의 모든 수익금은 전 세계에 나가 사랑과 봉사를 하고 있는 140여 명의 이화 동창 선교사들의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다.

가족을 위한 제1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성황리에 개최

총동창회가 1년 중 가장 푸르고 아름다운 5월에 개최한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이화동창 가족들에게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아내의 모교를 방문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만든 뜻깊고도 귀중한 행사였다.



5월 12일(토) 10시 부모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대강당 앞

에 모인 유지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미술용품과 정성어린 점심을 한아름 받아들이고 이화 캠퍼스 곳곳에서 아름다운 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에 분주하였다.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220여 명의 참가 어린이와 400여 명의 이화 가족들이 함께하여 수상자들에게 박수와 축하를 보냈다.

이번 행사는 조종남 총동창회장과 임원들이 자녀 양육으로 동창회 참여가 저조한 젊은 동창들을 위해 모교 방문을 견해 마련한 첫 번째 행사로 어린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느끼고 격려하는 것과 더불어 이화 가족들이 하나됨을 느끼는 소통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이화창립 126주년 기념 감사찬양 예배

5월 15일(화) 오후 6시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 창립 126주년 기념 감사 찬양 예배는 126년 전 스크랜튼 선교사를 통해 심겨진 한 알의 씨앗이 이제 이화라는 이름으로 2만 여 명의 재학생과 19만 동창들의 거대한 나무로 자랐음에 감사한 예배 시간이었다.

특히 금년은 스승의 날에 열리게 되어 뜻깊었으며, 개척과 도전, 섬김과 나눔, 사랑과 봉사의 이화정신을 굳게 지키며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을 펼치고 있는 140여 선교사의 실천적 삶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이 날 손운산 목사의 '따뜻한 경험, 호뭇한 이야기' 말씀과 함께 고형원과 부흥한국, 김도현, 이길승의 찬양이 있었다.

홍겨운 장터가 된 2012 이화 명물 장터 큰 바자회

지난 5월 17일(목) 아름다운 이화 교정에서 '홍겨운 장터'가 열렸다.

생활환경관 및 학생문화관 주변에 총 60개 부스가 설치된 이번 큰바자회는 대학, 과, 대학원, 지회 등 총 55개 동창회가 참가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풍성하게 이화 명물 장터를 펼쳤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 이번 큰바자회는 화창한 햇빛과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등 불순한 일기 속에서도 각 동창회 임원들의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바자회를 찾은 많은 동창과 가족 고객들에게 알뜰 구매와 색다른 즐거움을 안고



돌아가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큰바자회 행사는 수익금 일부가 베트남 전쟁 시 버려진 한국계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제 19대 국회의원 당선 동창 축하회

총동창회는 5월 24일(목) 오후 6시 모교 ECC 내 이삼봉홀에서 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동창들을 위한 축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축하회는 제 19대 국회에 등원한 동창들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으로 윤후정 명예총장, 김선옥 총장, 장명수 이사장, 신인령 전 총장, 김금례 여성가족부 장관 등 많은 동창들이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조종남 총동창회장은 "여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21세기에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 50분 중 열세 분이 이화에서 배출한 동창이라는 사실에 가슴 뭉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모두 그동안 이화를 위해 헌신하고 애써 주셨던 김활란, 김옥길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원로교수님들의 노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축하 인사를 하였다.

19만 동창의 큰 축제 행사 <2012 동창의 날 행사>

모교 창립 126주년을 맞아 5월 31일(목) 오후 2시 모교 대강당에서 총동창회 주관으로 동창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해외와 지방 지회, 각 과 및 단과 대학 등 약 2천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이번 동창의 날은 <올해의 이화인 추대>, <회보 경연대회 시상>, <합창제> 등이 열려 즐겁고 흥겨운 잔치 한마당이였다.

김효신(의학 84) 총무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조종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이 자리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동창들을 섬기며 사랑과 화합, 열정의 동창회를 만들고 특히 젊은 동창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나 많은 행사를 치루고 나니 감회가 깊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동창들을 위한 봉사에 진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6월 1일 해외동창을 위한 행사가 있음을 알리며 모처럼 모교를 찾은 해외 동창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였다.

모교 장명수 이사장, 김선옥 총장을 비롯하여 정의숙 전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총동창회 고문, 각 과와 단과대학 회장, 국내의 지회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하여 이날 행사를 축하하였고 참석 동창들 역시 오랜만에 찾은 모교의 아름다운 교정에서 추억을 나누며 즐거워했다.

특히 졸업 50주년을 맞은 1961년도 12월 졸업 동창 재상봉과 함께 졸업 30주년을 맞아 각 과에서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1982년 졸업 동창들의 축하 행사는 매년 열기를 더해 가는 합창제와 함께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또한 격년으로 시상하고 있는 동창회보 경연대회는 법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경영학과, 국제사무학과, 수학과, 교육대학원, 남기주 지회, 자카르타 지회 등 총 9개 동창회보가 참가하여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금상은 의과대학 동창회보, 은상 교육대학원, 동상 국제사무학과와 수학과, 장려상 법과대학, 약학대학, 남기주 지회가, 특별상에는 경영학과가 수상하였다.

해외지회 동창을 위한 모교 캠퍼스 순례

6월 1일(금)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년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해외 지회 동창들을 위해 총동창회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였다.

모교 진선미관에서 열린 오찬회를 통해 조종남 회장은 해외에서도 귀한 시간을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봉사하는 동창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한마음으로 화합하며 발전하는 지회를 위해 기도하였다.

오찬 후 박물관과 ECC 벨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해외지회 동창들은 내년 동창의 날에 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우정의 답소를 나누었다.



수필 & 시

삶의 한 가운데서 - 나의 은퇴

보스턴지회
김숙영 (약학 63)

나는 남편과 함께 은퇴를 했다. 두 아들로 부터 “엄마, 은퇴 하니까 어때요?” 하고 묻는 전화가 온다. 내가 아직 서운해 하는 눈치를 보이자 아이들은 “아빠, 엄마는 그동안 일을 많이 했으니 이젠 인생을 즐기세요”하고 말한다.

우리 가족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1974년 5월 밤, 내살과 한살배기를 데리고 뉴저지의 뉴와 공항에 도착했다. 미국의 비는 무서웠다. 그리고 벌써 30여년이 흘렀다.

두 아들은 존스홉킨스 대학을 졸업했다. 큰 아이는 의대를 나와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 개업을 했고 작은 아이도 그 길을 가고 있다. 모든 일을 생각할수록 감개가 무량하고 무사히 은퇴를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남편과 나는 은퇴하던 날 감사헌금을 많이 했다. 30여년전 내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이민을 간다고 하자 친정 아버지께서는 “보리밥을 먹어도 내 나라가 좋지 이민은 왜 가냐”며 되돌아 서셨다. 그 때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민 온지 얼마 안 되어 고생이 심했을 때 나는 아버지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 가겠다고 편지를 보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기왕에 미국에 갔으니 적극적인 살기로 그 곳에 잘 적응하라”며 힘들어 하는 딸을 위로해 주셨다.

나는 약사 공부를 시작했다. 아침 일찍 두 아이들을 공원 잔디밭에 내려 놓고 풀밭에 앉아 공부를 했다. 내가 두 번째 시험에 떨어져 포기하려 했을 때도 아버지께서는 “9층담을 쌓았어도 10층을 못 쌓고 허물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힘을 내어 한 번 더 도전해 보라고 하셨다. 남편도 한 번만 더해 보라고 용기를 주었다.

나는 운전면허도 세번째 테스트에서 합격을 했다. 이것이 내 미국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른다. 운전면허 같은 것도 세 번째이나 봤는데 하물며 약사고시는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하며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 결국 나는 세 번째 도전 끝에 뉴욕 약사시험에 합격했다. 40년 동안을 약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서울에서 동생이 와서 함께 처음으로 워싱턴의 벚꽃구경을 갔다. 너무나 즐겁고 감개무량했다.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는다. 나는 아침 6시에 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나가 운동을 한다. 돌아 와서 커피에 빵을 먹고 7시부터 12시까지 영어 공부를 한다. 은퇴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살고 싶다. 영어도 터득하고 싶다. 아니 정복하고 싶다.

고용인들은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휴가를 보내면서 우리 내외의 휴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렇게 이민 생활은 흘러 갔다. 큰 아들이 개업을 했어도 가보지 못했다. 은퇴를 하고 눈비가 쏟아 지던 날 우리는 5시간을 달려서 큰 아들에게 갔다. 다음 날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음식을 만들어 아들의 파트너들을 초대했다. 너무나 즐겁고 고마웠다. 아침에 아들 내외가 나란히 출근하는 모습이 그렇게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서 우리 내외는 부지런히 쇼핑을 해다가 며칠 먹을 것을 해 주고 서로 작별을 아쉬워하며 떠나왔다. 며느리도 의사라 바쁘니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었다.

우리가 은퇴를 한다니까 손님들은 그동안 고마웠다며 카드를 보내 주었다. 인사를 하기 위해 다녀간 사람도 많다. 나는 이런 미국 사람들의 인정이 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워 눈물이 났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넓고 넓은 공원을 걷다보니 어느새 태양이 붉게 용솨음치며 떠오른다. 참 상쾌한 아침이다. 이제 그동안 사다가 쌓아만 놓고 한 번도 쓰지도 입지도 않았던 것들을 꺼내려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식구들에게 주고 싶다. 이제 남은 여생을 금혼기라던가, 마음 편하게 아침 일찍 남편과 함께 운동으로 시작해서 건강하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려다.



< 아들 내외와 함께 참석한 지회연합총회에서 >



내겐 아들이 있어요
I have a son

도론토지의
백 목 현 (영문학 82)

화장실에서 낙상하여 엉덩이 골절로 입원한 캐더린 할머니는 수술을 받고서 내 환자로 배정받던 날, “내겐 아들이 있어요(I have a son).”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가리키는 침대 옆 탁상 위에는 정말로 긴 곱슬머리에 이마가 흰한 한 청년이 흑백 졸업사진 속에서 환히 웃고 있었다. 입원을 하면서도 가족 사진을 병실까지 끼고 다니는 이곳 사람들의 습관에 나는 아직 익숙치 않다. 그래도 그 사진에 호기심이 일어, 이제 내 나이쯤 되었을 캐더린의 아들이 혹시 그녀의 병실을 방문할까 해서 요 며칠 기다려 보았지만, 할머니 또래의 친구들 외에 아들같은 방문객은 아직 없다.

토론토에 옮겨와서 내가 발견한 흥미로운 풍경 중 하나는 도심 한 가운데 공원처럼 잘 조성된 공동묘지였다. 묘지하면 으레 인적 드문 산길, 그것도 밤길에 으시시한 귀신이 나오는 공동묘지와 그에 얽힌 전설의 고향을 떠올리는 나에게, 해가 누엣누엣 저무는 시각에도 동네 공원을 산책하듯 그 주위를 거니는 이곳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서 색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더욱이 묘지 앞과 그 주변은 누군가 가져다놓은 색색의 꽃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지난 봄에는 묘지 주변에다 자기 집 트랙에 화초를 심듯, 손수 꽃을 심는 여인을 본 적도 있다. 그리고 보면 이곳 공동묘지는 꽃과 묘비, 영 조화를 이룰 것 같지 않은 그들이 정답게 손을 잡고 있는 곳이라고 해야 할까? 마치 먼저 간 가족, 연인들과의 추억이 한, 두 장의 흑백사진 속에 아직 살아 있는 내 환자들의 침대맡 탁자와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병실에서 환자들을 들보다 보면, 자신의 곁을 떠난 배우자를 그리워하며 생의 마지막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노인들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 함께 갔던 남편과 오십여 년을 함께하다가 혼자 남겨진 할머니들의 추억담을 들을 기회도 많다. 먼저 간 배우자의 사진을 침대맡에 두고, 눈을 뜨면 굶모닝하고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 꼭 그 사진에다 입맞춤을 하고서야 잠이 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간혹 보게 된다. 서양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보다 이기적이며, 매정하고, 차가운 사람들이라는

나의 선입견을 다시 점검해 보게 하는 모습들이다. 비록 죽음이 자신들을 잠시 갈라 놓았지만, 곧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일은 내게 무척 놀랍고도 신선한 병상경험이라 하겠다.

그 탁상 위의 곱슬머리 청년이 영영 캐더린 할머니를 찾아볼 수 없는 사진 속의 인물임을 알게 된 것은 오늘 점심시간이었다. 내일 퇴원시에 존이란 이름을 가진 그녀의 아들이 그녀를 모시러 병원에 올거냐는 나의 물음에, 캐더린은 아들은 이미 오래 전에, 그러니까 이십여 년 전에 스물 둘 꽃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담담하게 대답하는 거였다. 그리고 그녀가 결코 ‘내게는 아들이 있었습니까(I had a son).’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아들은 늘 자신과 함께 살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 전에 죽은 그 아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쁨을 주며 현재를 살아갈 힘을 주기에, 자신은 결코 과거형으로 아들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현재 아들과 함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어느 시점일까? 인간의 따스한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때일까? 아니면 뇌세포가 죽어 더 이상 온 몸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고, 말하고, 사랑하고, 또 기억하려고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시점일까?

병상에서 많은 죽음을 지켜보면서 내가 늘 가져보는 의문이다. 그러나 죽음이 심장사를 의미하든, 뇌사를 의미하든 그에 관계없이 인간의 죽음은, 그를 혹은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먼저 간 그들의 사진을 소중히 하는 사람도 없고, 그들의 묘지에 꽃을 가져다 놓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린 그때를 죽음이라고 부르자. 살아 남은 자들의 기억이 꽃과 묘비로 존재하는 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억을 소중히 하며 잠이 드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우린 아직 죽음이라 부르지 말자고 내게 말해 본다.

오늘은 이미 죽은 아들이지만 늘 그 아들과 함께 있기

수필 & 시

에 의롭지도, 슬프지도 않다는 캐더린 할머니를 보면서 지금껏 내가 알고 있던 죽음의 정의를 수정해 보는 날이다. 먼 저 간 남편을 만날 수 있기에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다는 메리 할머니의 두 눈을 보면서 영원한 동행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하루이다. 이십년이 넘게 그녀의 시간들을 지키느라, 이제는 내 나이만큼 늙어 버린 캐더린의 아들... 그녀의 아들이 낡은 사진틀 속에서 환히 웃고 있는 캐더린 할머니의 침대머리 탁자에서, 꽃과 묘비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곳 공동묘지를 보며 느꼈던 신선한 충격을 다시 한 번 경험해 보는 하루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밴쿠버, 그 이민의 땅에서



밴쿠버지회
김 영 주 (국문 63)

모교를 생각하며



토론토지회
유 인 회 교문

우리는 이화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동문입니다.
한 알의 씨가 뿌리가 되어 자라 난 우리는 모교가 있어 얼마나 행복한 지 모릅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밝은 꿈, 아름다운 꿈, 고상한 꿈을 간직하고 또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잊지 않는 아름다운 이화의 지성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

등을 밀어보내는 아무도 없는데
바람처럼
밀리고 밀려와
우리는 이민을 산다
혁명을 산다
보아라, 이화의 딸들이여
우리의 꿈은
저문 하늘에 등불이 되는 거
꽃과 바람과 안개가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땅에 태극기로 휘날릴
내 자식들에게
꽃다발 같은 희망을 주는 거
온 몸 부서지게 노동을 끝내고 돌아와
잠들지 못하는 아픔을
그리하여 우리는 견뎌야 한다
젊은 날
꿈과 사랑과 학문을 키우던 거기
이름만 불러도 마구 그리워지는
배꽃 향기 퍼일뿔 날리는
이화여, 우리들의 어머니여
오래 오래 거기 서 있으시라
어느날 문득
이화의 딸들 강물처럼 흘러 흘러
그 밭치에
아름다운 섬이 되리



Essay & Poem

다시 손뜨기를 하면서



밴쿠버지회 김 아 재(앤김) (기독교학 64)

에버그린 아카데미(노인대학)의 가을학기에 손 뜨기 과목이 생겼다. 손 뜨기 선생님께서 고운 흰색의 겨울 모자를 선물 받았다. 추운 날 이 모자를 쓰고 나가면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고 하면서 "졌어요?"하고 한 마디씩을 한다. 실뜨기 선생님은 모자에, 판초에 그리고 멋진 목도리를 짜서 몸에 꾸미는데 내가 "멋집니다"하면 "졌어요"하는데 저 정도는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해 볼라고, 하니 예전 같지가 않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빙어리 장갑을 뜨는 것을 배운 실력으로 아이들을 가르면서 부러움에 뜨개질을 시작을 해 놓고 완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뜨개질 기초 뜨기는 디자인이 심플한 것이기에 시작을 했지만 생각보다 속도도 느려 실증이 날 수밖에 없어 완성도 못했다. 하고 싶은 용기와는 달리 이리 저리 굴러다니게 되다가 철이 지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뜨개질을 한다는 것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정확함, 관심, 정성 그리고 끈기가 필요한 것이다.

병원 로비 쇼케이스 안에 예쁘게 짠 아기들을 위한 편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욕심이 났던 일. Fisher Man 스웨터, 인디안 스웨터, 그리고 예쁜 담요를 보고 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았던 일이 슬그머니 스쳐 간다.

털실, 대바늘, 코바늘 그리고 패턴이랑 작품에 요구 되는 것들을 어디에서나 보기만 하면 욕심을 내 사서 싸 놓았다. 그리고 열심히 시간만 되면, 병원에서 기다릴 때 그리고 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에도 구박을 마다하고 뜨개 보따리를 가지고 다녔다.

생소하고 예쁘다고만 생각했던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하므로 사 온 Knitting Book으로 기초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뜨다가 남을 위해 떠서 주기도 했다.

이번 노인대학 봄 학기 손뜨기 반에서 손가방과 그 가방에 맞추어 모자를 뜨다고 한다. 선생님이 손가방과 모자를 짜서 쓰고 들어 오셨다. 너무나 깔끔하고 우아하고 명품아닌 명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으로 보였다. 손으로 뜬 가방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다.

돈의 만능시대에 또 명품가방이 난발하는 시대에 코바늘로 짠 손가방과 모자를 들고 다니겠다는 순수함과 자신감이 소탈하고 아름다웠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실뜨개에 다시 도전하기 위하여 어느 구석에 꽂혀 두었던 실과 바늘들을 다시 꺼내 보았다. 시작이 반이라 했지만 장난이 아니었다. 잠깐 정신줄을 놓았다가는 한 코만 틀려도 다 풀어야 하고 늘 코를 세지 않으면 틀려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안타까움을 거치지 않으면 그 실루엣이 안 나와 또 풀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도 알았다.

천신만고 끝에 모자랑 가방을 완성하고 나니 내 입가에 나도 모르게 만족의 미소가 넘쳤다.

실뜨개는 많은 인내와 꾸준함을 가르쳤다. 시작과 마무리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돈 주고 사야지했던 무심한 마음과 달리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 잘 한 것 같다. 코바늘로 하는 뜨기이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에 미안함도 더 해 주고 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진실에 또 배우는 모습이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인 것 같다 그 동안 직장에 다니고 다른 취미에 기웃거리다 보니 뜨개질은 언제했나 기억도 없이 잊어버렸는데 다시 나를 찾아와 내 자신이 신기할 정도로 미치게 뜨개질에 몰두하게 되었다. TV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잠이 안 와 힘이 들 때도 무료함이 없이 무엇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리고 만들어 졌다는 그 자체가 성취감을 느끼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다시 알게 되었다. 지난 주 어느 노인대학의 실뜨개반이 정원 30명인데 삼 시간에 정원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 주기도 했다. 노인대학에서 실뜨기 반은 인기를 끌고 있다.

나는 니트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전문가 못지 않게 몰두

수필 & 시

하게 되었다. 그동안 모자, 손가방 목도리 그리고 판초도 썼다. 지금은 가을에 입을 조끼를 짜고 있다. 한 올의 실로 시작해서 옷이나 무엇이든지 만드는 것은 정성이고 사랑일 것이다. 특히 작품을 완성해서 입거나 선물을 했을 때 비할 수 없이 소중한 그리고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은 모두 기쁨을 주고 받게 된다. 그 맛과 멋은 뜨개질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는 것 같다. 하고 싶은 새로운 일, 그리고 배우는 일에 도전한다는 것에 꿈이 벽차 온다. 인생의 후반기를 즐겁고 힘차게 살게 하는 활력소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날씨가 여름으로 달려 가고 있다. 어느 명품과 비할 수 없는 내가 뜬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쓰고 행복의 미소를 지으며 해변을 걸어 보고 싶다. (May, 2012)

고도를 기다리며

밴쿠버지회
배은영 (기독교학 90)

40이 넘어선 어느 날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자꾸만 머리에 떠올랐다. 그래서 책장에 먼지가 가득한 그의 책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긴 기다림 끝에도 고도는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안타까움이 가슴을 까맣게 태우도록 끝내 고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치 고도처럼 다가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건 이화여대 동문이신 강(오)유순 선배님이었다.

강(오)유순 선배님과 인연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아마도 2002년이었던 것 같다. 한인장학재단이라는 비영리 교민단체에서 담당 스태프가 내가 경영하는 디자인 및 프린팅 회사로 급한 인쇄물을 주문하려고 찾아왔다. 그 당시 소규모였던 장학재단의 이사장직을 강(오)유순 선배님이 맡게 되었던 시기였다. 인쇄물작업을 하면서 장학재단과 인연을 맺고 그 후부터 장학재단의 성장 과정을 옆에서 지켜 보게 되었다.

내가 회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인쇄물 디자인과 프린팅을 함께 하는 회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밴쿠버에 있는 주요 한인단체의 홍보물이나 행사관련 인쇄물은 나의 회사에서 맡았다. 그 덕분에 나는 각종 한인단체의 성격과 개요 그리고

연례행사의 진행 과정을 알아 갈 수 있었다.

강(오)유순 선배님께서 장학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으신 후부터 장학재단의 연례행사는 명실 공히 한인 사회 비영리 단체의 최대 기금모금 행사로 성장하면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물론 한인 단체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강(오)유순 선배님의 역할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인 변호사 사무실 이전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연히 선배님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한인사회에 여성회를 하나 조직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무심코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어 곧 선배님께서 무궁화재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창설하시게 되었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행동에 옮기시고 실행을 하는 것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오선배님의 특징인 것 같다. 그 후 오선배님은 무궁화재단을 통해 한인양로원 및 한인 문화센터 건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심하다가 공식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 밴쿠버 한인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1993년에 밴쿠버로 이주한 나는 한인회의 초라한 건물을 보고 정말 한심하고 속상했었다. 밴쿠버 교민들은 모두 한인 회관을 이렇게 방치할만큼 모두 가난한 걸까? 그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세월이 흐를수록 더 초라해져만 가는 한인회관을 바라보며 무언가 애타게 기다리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문득 떠오르기 시작한 것 같다.

당시 한인회는 빗더미에 올라앉았고 회관은 수리할 곳, 문제투성이 조직이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인회 건물, 험담으로 가득한 비조작적이고 비합리적인 인과관계를 - 그것은 부조리로 가득한 삶의 현상이었고 절망이었다.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를 통해 사무엘 베케트가 묘사한 무대의 현상과 다르지 않았다.

그 절망의 바다에 뛰어 든 선배님의 열정에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바로 기다리던 "고도"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한인회의 실상을 듣고 나는 어떤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암수술을 집행하려고 했던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고 나니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도로 배를 꿰매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나라면 아마도 현 한인회의 실상을 파악한 즉시, 그 의사처럼 배를 꿰매고 수술실을 떠나는 느낌으로 황급히 한인회를 떠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선배님은 무슨 연유인지 한인회장직을 추진하였

Essay & Poem

다. 나라면 선배님과 같은 재력이 있다면 그저 장년을 유유 자적하게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인생을 즐길 것이다. 그러나 각종 비난을 받으면서도 업무를 하나도 허술하게 넘기지 않고 매진하는 선배님을 보면서 현대화의 주축이 되어 한국 여성사의 발전을 담당했던 이화여대의 김활란 박사, 김옥길 총장님, 장상, 신인영 교수님, 박순경 교수님 등 시대의 선각자이셨던 선배님들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밴쿠버 사회에서 한인공동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대로 면모를 갖춘 한인 센터를 준비할 시기가 되었으나, 아무도 자신이 그 일을 할 사람이기를 자처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여 나서기를 꺼린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참으로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 있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의면이고 방관이라고 여겨졌다. 한인사회에는 지성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사도 많고 사업에 성공해 재력을 가진 사업가들도 적지 않은 듯 싶는데 한인 공동체를 위한 일에 관여하기를 꺼리는 것 같다.

혹자는 한인회를 가리키며 무조건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시각 속에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고 표현한다. 한인회의 역사를 본다면 십분 긍정할 수도 있지만 캐나다의 소수민족사회에서 한인을 대표하는 한인회의 꼴이 그렇게 허접스럽도록 언제까지 스스로의 공동체에 대해서 비난만 일삼을 것인가?

한민족에게 설움과 굴욕의 역사를 안겨주었던 일본인들은 그들의 문화센터인 니케이 센터와 양로원을 밴쿠버의 중심에 위치한 번화바지에 세웠고, 중국인들은 석세스라는 막강한 조각을 각 지역마다 수십 개의 브랜지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인들의 석세스는 1년 운영자금이 3천 6백만 불에 달하고 그 중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정부로부터 지원된 금액이 다시 중국인 커뮤니티로 환원되니 그들의 힘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www.success.ca 참고)

우리 한인사회는 한인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에 언제까지 비판과 의심과 방관으로 일관할 것인가? 성서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나, 그 의인이 모자라 도시는 망하고 말았다. 과연 그 도시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백로 같은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그 나라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백로는 까마귀 이상으로 많

았으리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함께 타락한 죄인으로 두고 연대 처벌을 선택하시고 말았다.

부패한 사회를 바라보고도 침묵을 지킨다면 그건 또 하나의 동조 세력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백로라 칭하기를 거절한다. 그 어떤 지성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지성을 존중할 수 없고 그 어떤 재력가에게도 우리는 그의 재력에 권위를 둘 수 없다. 그러한 지성인은 지성이라는 액세서리를 두른 껍데기에 불과하며 또한 재력가는 크리스마스 동화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과도 같은 욕심꾸러기 부자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고 존중하지 않는다.

장학재단 이사장직에서부터 무궁화 재단 창립 그리고 한인회장에 이르기까지 오선배님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여러 비난과 부정적인 공격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뒤에 앉아서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보다는 그 어떤 한계와 비난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비전을 향해 도전하고 실행하는 선배님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앞선 역사의 선구자라 생각되었다.

한명의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에게는 수많은 약점과 오류가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에 불과하다. 필자의 생각 속에도 필시 충분히 약점과 한계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혹 약점과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력을 헌신하고 있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비판보다는 격려와 존중,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의 부족과 한계를 채워주기 위해 고민하고 협조해야 하는 것이 바른 행보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역사에 기록될 놀라운 선배님의 행적을 하나 여기 적는다.

선배님은 아버지 장례 부조금을 모두 한인장학재단에 회사하시고, 어머니 장례 부조금을 또한 한인센터 건립 기금을 위해 회사하셨으며, 이번에 100만 불이라는 거액을 또한 밴쿠버 한인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공동체를 위해 회사하셨다.

한인이 따라야 할 역할 모델을 보여주신 선배님께 존경과 감탄과 찬사를 다시 한 번 보냅니다.

수필 & 시

탈북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의 통일음악회



캐나다 뮤즈 한국 청소년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Violinist, 수필가

밴쿠버지회
박혜정 (권현악 82)

요즘 제자들과 이야기 할 때 “너희들 이런 것도 모르면 간첩이야.” 라고 하면 “간첩이 뭔데요?” 라고 다시 되물어 와서 질문한 내가 오히려 어색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과할 정도로 반공교육을 받아서 북한 사람을 빨갱이라고 불리 북한사람은 빨갱게 생긴 줄 알았을 때를 생각하면 격제지감을 느낀다.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의 통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한편 걱정도 되었다.

그러던 차에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씨를 알게 되었다. 그를 밴쿠버 민주평통 문화분과의 발의로 초청해서 북한의 문화에 대해서 알리고 통일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통일음악회를 열게 되었다.

김철웅씨는 자기가 81학번이라고 했다. 1974년생이라 의아하게 생각되어 물어 보았다.

북한에서는 1973년부터 예체능 부문의 조기 교육이 시행되어 그는 3,000:1의 경쟁을 뚫고 음악대학을 8세에 입학했다. 학생 800명에 교수 1,700명. 물론 좋은 출신 성분만 입학이 가능하다.

그는 북한 제일의 피아니스트로서 러시아에 유학을 하던 중 우연히 카페에서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이라는 곡을 듣고 북한에 돌아와 그 곡을 치다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북한의 차관급 대우를 받는 평양 국립교향악단 수석피아니스트이었지만 그 후 연주의 자유를 찾아 탈북을 결심하

게 된다.

북한에서는 클래식 이외의 곡은 전부 재즈(트롯트까지도 포함해서)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렇지만 모든 클래식 곡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낭만주의 시대의 것까지만 연주를 할 수 있다.

그 중 라흐마니노프는 미국으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의 곡은 연주 할 수 없다고 한다. 사상적으로 우수한 작곡가의 곡만을 연주 할 수 있다.

나는 음악회의 총감독을 맡아 등분서주했다. 연주날도 무대 뒤에 있었지만 아쉽게도 마이크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들을 수가 없었다.

많은 관객들이 관심을 가졌다.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실상을 교과서와 언론 외에 진실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통일을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주시간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는 공연이었다.” 등등.

그의 연주 CD는 금방 매진이 되었다. 음악회가 훌륭했다는 소리를 듣고 5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눈 녹듯 사라지며 행복감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또 빅토리아 공연이 계획되어 있어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다.

빅토리아 공연은 많은 출연자가 갈 수 없어 2명의 연주자만이 동행하게 되었다. 덕분에 나도 음악회를 감상하며 북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북한에서도 피아노를 배울 때 바이엘, 체르니, 하느님을 찬양하고 한다. 우리와 다른 것은 북한 동요를 자기가 연주하는 곡의 2배 이상 치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북한 동요 “혁명군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이 곡은 단순한 동요라고 하기보다는 터키 행진곡 같은 느낌이 들었다. 또 국악기도 개량해서 모든 서양곡과 맞도록 작곡을 한다고 했다. 물론 선동과 선전을 위한 곡들도 3,000곡이나 된다고 한다.

그의 메시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다르다는 것 보다는 같다는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다.”라는 말이다. 이 중요한 것을 왜 느끼지 못했는지. 나 또한 연주

Essay & Poem

할 곡을 주고 받으면서 "이런 것이 다르구나!"라고 먼저 생각 했었다.

그런데 한국 가곡 "남촌"과 북한 가곡 "산으로 바다로 가자"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서정적인 감정은 비슷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대표곡인 "아리랑 소나타"를 연주했다. "새야새야 파랑새야"라는 곡으로 조용히 시작되어 격정적인 느낌의 아리랑까지 들을 수 있는 멋진 곡이었다.

탈북자 25,000명 시대. 그는 "탈북자를 미리 찾아 온 통일 의 메신저"라고 이야기한다. 북한에서 민중 봉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탈북자가 잘 사는 세상이 오면 소문을 통해 자연히 북한이 변화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김정일, 김정은은 싫지만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 에 북한을 사랑하고 또 그곳을 더욱 좋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연주를 통해 통일을 단 3분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으로 연주를 한다.

그는 탈북청소년에게도 관심이 많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어 일반 청소년과 다를 것 없이 평등하게 살기를 바라며, 또한 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아리랑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려고 한다.

이번 북한 이야기가 있는 김철용교수 음악회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기금모금' 연주회로 많은 분들이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껏 모금하여 주셨다. 그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탈북 청소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밴쿠버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의 소원대로 음악을 통해 통일의 초석이 되어 다시 한 번 그가 만든 아리랑 오케스트라와 함께 밴쿠버에서 만나기를 기원해 본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워싱턴디씨지회
최숙자 (도서권학 64)

올봄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다.

한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본의 아니게 무남 독녀가 된 나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두 자녀를 두셨고, 그동안 사위, 손주, 손녀를 주셨고, 이번에 며느리까지 주시고, 골고루 다 채워주셔서, 이젠 아주 큰 부자가 된 것 같다.

아들의 결혼식이 끝난 직후에 있던 내 생일에도, 또 어머니 날에도, 새 며느리가 정성으로 사랑이 넘친 선물로, 예쁜 카드와 전화로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었다.

가끔 "사위와 며느리가 마음에 드나?"고 묻는 이가 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우리 애들이 훨씬 낫지요"하는 대답을 하게 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그들의 가정을 꾸미고 살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과 기도이다.

나의 삶, 지난 65년을 되돌아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었는데도,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셨다. 고린도 전서 13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을 닮은 Unconditional Love를 집안 식구에게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본다.

Unconditional Love를 나누고, 남기며 사는 삶 이상으로 더 부자가 있을까?



수필 & 시

실리콘 벨리에서 뿌리 내리기까지

북미주지회 선출이사
양 송 회 (사막 73)

5월의 토요일 오후 정신없이 회사 일과 여러 일들로 일주일을 바쁘게 지낸 후 모처럼 우리 집 뒷마당의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23년 간의 나의 미국생활을 회고해 본다. 캘리포니아의 봄바람은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 상큼한 풀내음새와 함께 나의 마음 속까지 상쾌하게 해 주고 일주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는 듯 하다.

24년 전만 해도 나는 한국의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출근하는 남편과 학교에 가는 아들, 딸들을 배웅하며 하루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집안청소하고 이웃집 아줌마들과 수다나 떨며 백화점 쇼핑이나 하고, 또 가끔 친구 모임과 학교 어머니회에 나가서 봉사활동이나 하는 게 고작이었던 내가 이렇게 변화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지금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상대하며 정신없이 회사일을 하다보면 그 옛날의 평범한 가정주부 생활이 그립고 복잡한 서울 거리가 그리워지고, 친척과 친구들이 무척 보고 싶을 때가 많지만 나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하다.

아들은 6년 전에 결혼하여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고, 막내딸은 아들 하나를 두고 둘째 아이를 가졌으며 큰 딸도 곧 결혼을 할 예정이다. 요즘 내 생활의 활력소를 집어 넣어 주는 손주 3명을 보고 있으면 나의 미국생활을 보고 있는 듯 하다.

1989년 4월에 나는 37년을 살아 온 정든 땅을 뒤로 두고 세계 최강국이며 최대한의 자유와 권리가 개개인에게 주어졌다는 미국, 그것도 최강의 지역으로 뽑히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근교의 실리콘 벨리 지역으로 남편의 직장이동 때문에 이민을 왔다.

원래 한국에서도 미국인 전자회사를 다녔던 남편이 미국 본사로 오게 되어 좋은 조건으로 오게 되었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생활에 일가친척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쉽게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국생활이 그립고 부모형제가 그리워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자식들 세 명은 미국을 좋아하고 쉽게 적

응하여 학교생활에 충실해 모두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들은 실리콘 벨리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고, 큰딸은 샌프란시스코 CBS CNET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막내딸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코스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니, 자식 세 명과 손녀, 손자, 외손자 세손주들이 모두가깝게 살고 있어 자주 만나고 지내니 너무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미국에서도 일복이 많은 지 미국에 온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중국인 컴퓨터 회사의 어카운팅으로 취직되어 일을 하면서 다방면에서 미국생활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 미국의 TAX 관계, 전자부품들, 미국의 경제와 문화 등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열심히 배웠다. 미국은 이민의 역사 위에 이룩된 나라여서 그런지 누구나 노력하면 그 댓가를 누릴 수 있고 또 개인의 권리를 허용하는 점, 여자가 일하기 좋은 조건이 많은 점 등 장점이 많은 나라이다.

나는 이 장점을 살려서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나의 사업을 하는게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남편과 의논 후 마침내 1991년 10월 1일에 Maxpro Electronics라는 회사를 산호세 다운타운에 사무실을 빌려 설립하게 되었다.

회사를 처음 설립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남편은 계속 자기 직장에 다니면서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만 우리 회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할 수 없이 전자반도체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내가 발 벗고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그동안 미국에 와서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배운 여러 지식과 경험을 살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였다. 처음에는 과연 잘 될까? 하는 불안감에 쌓였지만 회사 안내문과 명함을 서울과 홍콩, 유럽 등 전 미주에 돌리고 남편의 선후배님들의 많은 도움과 퇴근 후에 남편의 협조로 차츰 회사가 자리를 잡혀가기 시작하였다.

역사를 전공한 내가 미국에 와서 전자사업을 하자니 너무 지식이 없어 전자반도체에 대한 책과 컴퓨터를 통해 지식을 쌓고 미국 내의 각종 전자쇼와 동남아시아와 유럽의 세미나에도 참석하여 지식을 쌓아가며 완전히 여성 전자반도체 경영인이 차츰 되어 갔다.

우리 회사 일이 바빠지자 1996년 부터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우리 회사 일을 같이 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Essay & Poem

직원도 두게 되었다. 남편 생각으로 1997년에는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홍콩과 싱가포르에도 자주 가게 되었다.

특히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전세계가 하나가 되어 서울, 홍콩,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과 연락하려면 밤에 잠을 못자고 집에서 회사 일을 하는 적이 많다. 그러나 매일 매일 회사일을 하면서 미국에 와서 이 사업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고 있다.

1998년부터는 이화여대 북가주 동창지회에도 나가기 시작하여 많은 선후배님을 만나고 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동창회장의 경험까지도 쌓게 되어 내 인생에서 인간관계에 가장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1년에 한 번씩은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에도 나가 많은 좋은 선후배님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다른 미국 이민생활을 접하며 살고 있다.

또 작년부터는 학교 다닐 때에 전공하였던 중국역사를 이곳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광까지 가지게 되었다.



미국에 이민와서 뼈저린 아픔이나 고생을 해 보진 않았지만 어렵פות이 미국에서의 삶에 만족하지만은 않고 도전받는 삶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한국 거래처에도 여성들이 반도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수많은 여성들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어떤 때에는 여자라서 더 좋은 점도 있다. 이민자들은 미지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꿈을 따라 희망과 용기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선구자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앞으로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뿌리를 잃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울 것이며, 현재 61세이지만 우리 사업과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여 나의 삶을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들기 위해...

내 안의 정원 하나



남가주지회
김 영 교 (영문 63)

눈 감으면
 가깝게
 가슴 솔으면
 더 싱싱하게
 자라는
 내 안의 정원
 맨발의 이슬
 흙 가슴 적시면
 새소리에 깨어나는 아침
 초록 잎새에 고인 하루치 햇살
 울아와
 행복해 지는 또 다른 하루
 시도 때도 없이 찾아드는 근심의 검부랭이
 걱정의 잡초들
 마음의 들맹이 추리고
 모질게 굳어버린 냉담 뒤집어엮으면
 흙 알갱이 사이로 스며드는
 눈부신 빛 한 움큼
 생명 밭갈이 들숨 날숨이
 왕래의 길을 낸다
 춥고 허기질 때에도
 품었다 쉬어 가게 하는
 기도의 작은 땅배기 한 점

수필 & 시

그때 그 시절



남가주지회
정금숙 (국문 63)

1959년, 대학에 입학해서 기숙사 본관에 들어갔다. 다른 친구들은 신관이 좋다고 하지만 나는 고풍스러운 본관 건물이 운치도 있고 멋스러워 더 좋았다. 화창한 봄 날이었다. 열한 시에 수업이 끝나고 열두 시에 있는 채플 시간까지는 한 시간이나 여유가 있어 기숙사로 발길을 향했다.

기숙사 복도는 대낮인데도 고요하고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없는 방 침대에 누우니 편안하고 노곤해져 스르르 잠이 들었다.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오 분 전 열두 시였다. 채플시간! 정신없이 대강당을 향해 뛰었다. 대강당 문은 철통같이 닫혀져 흔들어도 꿈쩍을 하지 않았다.

아! 천국문도 이렇게 닫혀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기숙사로 댁없이 걸어가는데 셋노란 개나리가 양쪽 길을 따라 만발해 있었다. 갑자기 고향 집 담장에 피어 있을 개나리가 생각났다.

열두 시 삼십 분에 기숙사 식당 문이 열린다. 채플이 끝나거나 수업이 끝난 학생들은 우루루 식당으로 몰려든다. 천여 명이 들어가는 식당은 모두가 한창 피어나는 개나리들이다. 교내 식당이 아니고 기숙사생들만을 위한 식당이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떠들썩하게 물러들었다가 쌀물처럼 순식간에 먹고 각자의 방으로 또는 수업으로 흩어진다.

기숙사 한 방에는 네 명이 있었다. 우리 방 식구는 영문과, 약학과 예쁜 두 언니와 신입생인 사학과 친구가 함께 했다. 세 명이 모두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할 때는 무척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곧 익숙해져 친하게 됐다.

아침 식사당번이 정해지는 날은 30분 일찍 식당으로 가서 아줌마들을 돕는다. 일곱 시 식사 시간에 대표기도가 “아

멘!” 하며 끝남과 동시에 밥 그릇 소리, 숟가락 소리가 순식간에 왁자지껄해진다. 그 소리는 정말 생동감이 있고 아침을 활기차게 여는 아름다운 소리다.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반찬 중 하나는 계란 프라이이다. 흰 밥에 계란 프라이가 상큼하게 올려져 있는데 보자마자 군침이 확 들었다. 계란 프라이를 어찌면 그렇게 예쁘고 깔끔하게 부쳤는지, 또 노란자는 반숙으로 적당하게 익어서 뜨거운 흰밥에 비비면 금세 색깔이 어우러져 병아리 색으로 물들었다. 거기에도 간장을 약간 쳐서 간을 맞춰 멸치볶음에다 먹으면 정말 환상이었다. 행복한 아침 식사였다. 그런 날은 아줌마들이 새벽 두 시에 일어나 계란 천 개를 부치기 때문에 다른 반찬은 할 수가 없었다. 반찬이 없어도 모두가 게눈 감추듯 먹어지었다.

방학 때, 집에 와서 똑같이 해 먹지만 절대로 그 맛이 안 났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당번들은 뒷치리를 도왔다. 아줌마들은 기마술에서 만들어진 누룽지 한 광주리를 수고했다며 당번들 앞에 내놓았다. 우리는 방 수대로 똑 같이 나눈다. 여럿의 눈이 순식간에 펑펑 들어간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제일 크고 먹음직스런 누룽지를 차지했다. 누구보다 짭싸고 아무진 사학과 친구 때문이었다. 어쩌나 방 식구들을 잘 챙기는지 우리는 항상 덕을 많이 봤다. 한편 그 친구는 “언니들여, 우째 그랬을까예, 마, 창피해 죽겠심다.” 하며 후회를 했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제때에 식사를 하지 않아 항상 체중을 끼고 살았었다. 그런데 기숙사 생활을 한 후부터는 위장병을 깨끗히 고쳤다. 남자들이 군대 생활에서 많은 것을 고치듯이, 저녁에 출출하면 어머니가 만들어 준 고추장 볶음을 꺼내놓고 오징어 다리를 쪽쪽 찢어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았다.

즐거웠던 기숙사 생활. 방 식구들은 지금 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친구야! 반갑다>라는 프로에라도 나가면 만나 볼 수 있을는지...

이렇게 그리울 줄 알았으면 모 월 모 시에 김활란 박사 동상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이라도 할 걸.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 그 시절이 마음에 머문다.



Essay & Poem

칼바도스의 추억



세인트루이스지회 정홍순 (음대 62)

미시시피 강변을 거닐며 칼바도스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그 게 무엇인가 묻는다. 그것은 프랑스의 북부 브리타니의 칼바도스 지역에서 나는 사과로 만드는 브랜디다. 주당이 못되는 나는 술을 말할 자격이 없으나, 뽕 가지가 넘는 맛이 다른 사과를 섞어 각가지 오묘한 맛을 내는 칼바도스는 꼬냑에 비금가는 대단한 예술품이다. 마셔 본 사람은 그 향기를 잊지 못한다.

칼바도스에 애착이 가는 것은 30여년 전 처음으로 파리의 뒷 골목에서 본 정겨운 모습 때문이다. 오랜 역사에 이끼가 끼어 있는 무프따르 거리의 허스름한 비스트로에 들어서니, 모리스 슈발리에를 꼭 닮은 할아버지가 여닐곱 된 직한 손자와 마주 앉아 있다.

곧 작은 접시에 소주잔 같은 유리잔에 담황색 술이 두 개의 각 설탕과 함께 나왔다. 할아버지가 각설탕을 술에 살짝 담갔다가 어린녀석에게 준다. 이녀석이 각설탕 술을 먹으며 어찌나 좋아하는지.

나의 친구 K는 즉시 이것을 주문하여 할아버지가 한대로 각설탕을 술에 조리해 나에게 건네준다. 처음 맛보는 설탕 칼바도스가 그렇게 향기로운 수가 없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이 향기를 더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술을 함께 즐기며 주도(酒道)를 가르치는 할아버지는 참으로 좋은 친구다.

알콜중독이 큰 문제가 되어 있는 미국에서, 이상하게도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은 중독자가 드물다. 이 전통이 2세까지는 지켜지다가 3세대로 내려가면, 다른 이민자들처럼 술고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마도 포도주를 어릴 때부터 식사의 일부로 부모와 함께 즐길 때는 문제가 전혀 없다가, 집

을 떠나 대학에 가서 주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동양에는 도시 술을 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K는 한 잔하면 온동네 술 혼자 마신 듯 온몸이 흥당무처럼 달아오른다. 그러면 가려움 때문에 소리없이 비명을 올린다. 알콜 알레르기 증세다. K가 풍류를 몰라 맛이 없는 건 술을 못하기 때문이다. 달과 달걀 어느 쪽이 먼저나처럼 원인과 결과를 잘 알 수 없지만...

교육이 무언가, 학교 공부는 그 한 부분이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과정 전체가 교육일 것이다. 세상살이 둘러보면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이 절도가 있고 없음에 옳고 그름이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약도 지나치면 독이 되고 술도 알맞게 마시면 백약(百藥)의 으뜸이라 하지 않던가.

옛날 러시아의 황제가 기독교 이슬람 불교 가운데 어느 쪽을 국교로 삼을지 고민했다.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위대한 종교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기독교를 택했다. 오직 기독교만이 술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보드카 없는 러시아를 상상해 보라. 그 위대한 문학, 음악, 발레가 과연 나올 수 있었을까.

어찌 사람만의 낙이라. 한무리의 원숭이가 과일을 땅속에 묻어 발효한 뒤 꺼내 먹고 신나게 놀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술꾼이 지어 낸 얘기같은데 이게 사실이었으면 한다.

칼바도스 한 잔에 시(詩) 한 수로 떠나가는 나그네의 낭만을 노래한다.



2011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보스톤에서 열리다

제 10회 이화여대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행사가 보스톤 지회 주최로 350여 명의 참가로 성대히 이루어지다

2011년 제 10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와 제 42회 이화국 제재단(뉴욕에 본부) 총회가 보스톤 근교의 웨스턴 월담 호텔에서 열렸다.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화여대 동문들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위해 북미주 지회연합회에서 개최한 것으로, 10월 27일 목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총 4일 간 플리머스-보스톤 투어를 겸해 진행된 행사다.

참석한 동창은 260여 명이며 20개 지회, 23개 주와 프로빈스(뉴햄프셔, 메인,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오클라호마,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오하이오 2지회, 미시간,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2지회, 워싱턴주, 매릴랜드, 버지니아, 텍사스 2지회, 애리조나, 알래스카, 토론토, 밴쿠버)에서 참가하였다. 세인트루이스와 캔자스 지회에서도 서신 연락이 있었다.

국제재단 비등문 참가수는 20여 명, 동문 가족 70여 명 등 참가 총인원은 350여 명이다.

모교에서는 김선옥 총장을 비롯하여 박동숙 대외협력처장, 남영숙 국제교류처 부처장, 총동창회에서 조종남 총동창회장, 위성숙 지역부장, 문화부장, 지연숙 선교부장, 한재옥 수학과 동창회장이 참가하였다.

25-27일엔 한나리 동창이 이끄는 뉴햄프셔-메인주의 국립공원 특별여행에는 50여 명이 참가하여 뉴잉글랜드의 단풍과 랍스터, 아카디아공원의 절경을 즐기고 호텔로 도착했다. 27일 목요일 곳곳에서 자동차와 비행기로 동창들이 눈 때문에 예정시간대로 도착하지 못했지만 노란 티셔츠를 입고 환영하는 풍선을 준비한 이문희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보스톤 지회 동문들의 접수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8시가 되자 윤정자 동창이 이끄는 종이접기 클래스와 최신자 동문의 이태리칸소네 클래스가 성황했고 각 지회장과 연합회이사들은 이사회를 시작하였다. 지난 엘에이에서 결정된 회칙에 따라 모인 첫 이사회는 오명애 이사장이 주관했다. 각 지회의 보고가 있었고 서기록과 회계보고,

총동창회의 회칙을 준수하는 지회연합회가 나아갈 길을 의논하였고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금요일 28일엔 보스톤 지회에서 준비한 아침식사 후 2차클래스가 있었고 미국 역사의 본산 플리머스 관광을 위해 버스를 타고 한시간을 가서 400여년 전으로 재현된 메이플라워호에서 그 시절의 상황을 접하였다. 플랜테이션에서 뉴잉글랜드 트러디션의 점심을 맛보았고 역사영상과 재현해 놓은 나무로 지어진 집과 회당을 투어했으며 미국의 시작인 이곳 지역의 선구자의 역사를 실감하였다. 시간관계상 콘코드와 렉싱턴에는 가지 못하고 투어에서 돌아 와서는 이소영 동문변호사의 미래계획 세미나를 경청했다.

금요일 저녁에는 총장님과 의 만찬에 2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동창과 한나리 동창의 사회로 시작되어 조수현 연합회장의 환영인사,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격려사, 하버드대 데이빗 맥간 교수의 이화-하버드 결연에 대해, 보스톤으로의 환영인사가 있었다.

본교출신 보스톤대학교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동문 권택의 실력있는 연주와 소프라노 열창이 있었고, 곧이어 김선옥 총장의 이화소식, 동창들에게 인사 말씀이 있었다.

박동숙 대외협력처장은 자료를 통해 이화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장화인 이화국제재단 부이사장의 보고도 있었으며 한나리씨의 인도로 경쾌하게 춤도 추면서 늦은 밤을 즐겼다. 이화 125주년을 축하하는 케이크와 함께 흥순찬 동창의 생일도 축하했다.



< 뉴햄프셔-메인 특별여행에서 >

29일 토요일엔 성악 공개 레슨 시간과 한편 손주들에게 가르치려는 열면 종이접기 강좌와 김은한 박사의 백제-일본 연구 강좌가 성황을 이루었다. 토요일 아침에 지회연합회 총회가 조수현 회장 사회로 개최되었다. 참석인원은 120명이었으며 진지하게 회칙을 결정했던 작년 회의록을 들었고 회계보고를 통과시켰다. 또한 각 지회 보고가 있었는데 첫



번 지회로 결정된 노스캐롤라이나의 윤종희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토요일 보스턴 투어는 비가 오는 중에도 Freedom Trail의 오래된 길을 걸으면서 미국이 되어지기까지의 독립운동이 이루어진 곳의 발자취를 맛보았다. 찰스 강의 MIT와 하버드대를 보고 호텔로 돌아왔다.

일기가 폭풍으로 바뀌면서 5시에 호텔은 정전이 되었다. 비상전등이 들어 오고 270여 명의 손님들이 자리에 앉고 크리스티나 맥간과 김유미 동창의 연주를 들으면서 토요일의 대만찬은 시작이 되었다. 애틀란타 지회의 합창에 환호하였고 식사를 시작했지만 반만 준비가 되어서 부족했다.

하지만 참석인들은 침착하게 인내하였고 조수현 회장과 오명에 이사장,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인사를 마이크도 없이 들었다. 김선옥 14대 이화여대 총장은 이화의 새로운 슬로건 "모두를 위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이화여대(Ewha, Where Change Begins)"를 강조하며 "미래형 인재 양성에 치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학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는 한편 솔베이와의 협력 사업 글로벌 탑 5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이화의 실천 나눔 사업, 캠퍼스 확장 사업 등을 들으며 이는 동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 속에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부탁했다.

하버드 법대의 석지영 교수는 특별 강연을 통해 6세 때 이민 온 자신이 교수가 되기까지는 이대출신 모친의 힘이 컸다는 점을 말하며 "어머니가 데리고 간 공립도서관에서 읽은 많은 양의 책과 내 열정에 맞는 일을 만난 것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자들은 언어의 장벽을 넘고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하고 커뮤니티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재단 윤순영 이사의 기금 전달사가 있었다.

애틀란타의 조성숙 회장님과 15분은 말끔히 까만 드레스를 입으시고 합창을 해주셨다.

뉴욕의 Sunny~공연은 귀여운 엉덩이 댄스로 접수를 땀다. 샌프란시스코, 북가주 지회의 Phantom of the Opera 공연은 대상을 받을 만큼 정교하고 마해진, 윤영신 동창의 솔로로 아름다웠다. 밴쿠버의 박혜정 동창이 연출하여 15동창의 재밌는 노래와 춤, 모든 분들을 즐겁게 하였다. 토론토의 공영희 회장님과 다섯분의 화려한 Dancing Queen을 보며 모두가 함께 반짝이었다. 보스턴의 조유미 동창이 지휘한

Nella Fantasia 합창공연은 모두를 꿈의 세계로 보내주었다. 물론 반주 CD를 못쓰고 마이크도 못쓰고 Emergency Lighting 아래서였다. 식사도 다 못하였고 신나게 음악을 틀어 놓고 함께 춤추지 못하고 안나리 동창의 재밌는 리드도 받을수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본교 동아리 클럽에서 만들어 보낸 선배님들께 보낸 이대소식도 못보았다. 김명자 동창의 태권도 시범도 있었고 모교에서 십년 이상 가르치셨던 성경순, 노창섭, 김철규, 정확실 교수님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다. 49년에 약학과를 1회로 졸업한 안지수 동창이 '친구여'라는 노래를 선창하여 다함께 합창했기 이어서 교가를 불렀다.

토요일의 폭풍으로 전기가 나가고 마이크 시설을 못쓰는 상태와 식사가 덜 준비된 극한 상황에서 참석인들은 침착하게 연사와 음악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히려 운지있고 인간적인 맛이 나서 더욱 귀한 자리가 되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렇게 클래스 있고 정겹고 아름다운 모임은 처음이라고 부군들도 한마디씩 했다.

30일 일요일엔 총동창회가 제공한 아침식사 후에 후배들이 만들어 보내 준 모교 동영상을 보았고 토요일에 못들은 대외협력처의 캠퍼스메스타플랜 PT가 있었다. 최경숙 동창이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 주일예배에 150명이 모였다. 지연숙 선교부장의 기도, 연합회 성가대의 찬양과 보스턴지회에서 지원하는 동문 선교사들을 위한 헌금(기도:박영복)이 있었다. 악조건에도 오히려 은혜를 만끽한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제 10차 총회였다.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한 보스턴 지회는 절찬을 받았다.

Ewha Tradition Shined On in Boston 2011 Autumn.

2012년 11월 1-4일 밴쿠버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아쉬운 작별을 했다.



< 2011 보스턴 지회 총회의 합창 모습 >

지회소식

Boston 보스턴 지회

보스턴 지회에서는 이화 보스턴 2011 총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2012년 2월 4일 첫모임을 뉴튼의 압구정에서 김지수 고문(약학 49), 서인숙 회계(경영 73), 조수현 전회장(수학 76), 이문희 부회장(작곡 77), 김희선 회장(법학 77)이 모여서 새로운 각오와 의견을 교환하며 오찬을 나눴습니다.

2월 18일 은행 인수 인계를 마치고 조사를 당한 동창계 위로의 카드와 조의금을 전했습니다.

4월 3일 김경애 이사장(약학 70)의 기도로 시작된 임원회에서 새주소록을 만들기로 다시 한 번 거론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의 일들을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7일 서울대와 이대 주최로 투자와 은퇴에 관한 강연회로 이명덕 박사 강연 - 이해원(약학 70) 동창께서 다과를 준비하셨습니다.

4월 14일 한미 시민협회 인턴쉽 기금 만찬 모임을 후원하여 한인 2세대들이 정치 인턴을 경험하며 미래에 더 나은 돕기 기원하며 후원금을 전했습니다.

5월 12일 대학연합골프대회를 후원합니다.

5월 13일 보스턴 한인 합창단의 자선공연에 이화 동창님들을 후원하여 후원금과 성원을 보냅니다.

6월 15일 김경애 이사장님께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름에 탕글우드 음악회와 1박 2일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Paul International Ministries)

김연아 동창,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수상

김연아(도서관 91) 동창이 제13회 재외동포문학상에서 단편소설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김동창의 소설 '하얀 세상'은

http://webzine.korean.net/201112/pages/sub04_02_03.jsp에서 읽을 수 있다. 김연아 동창은 작년에 있었던 보스턴 총회 전에 배부된 북미주 지회연합회보 편집인이었다.

Alaska 알래스카 지회

100%의 출석율로

일년에 4~8회의 모임 가져

알래스카 지회는 항상 100%의 출석율과 연회비 200불을 100% 완납하는 모범 동문들이 일년에 4~8회 모임을 가졌다.

1. 계절별 4회 정기 모임이외에도 생일과 Blueberry Festival가 올 피크닉도 다녀왔다. 문병, 문상을 비롯한 경조사에 서로의 안부와 배려를 통해 동문 친목 교제를 나누고 있다.

2. 지역 봉사에도 6년째 친불 장학금을 고교 졸업생에게 수여하고, 지역 노숙자 배식 기관과 AWAIC 여성 복지 기관에 대해 기부하고 있다.

3. 알래스카 장학 기금 구좌가 뉴욕 국제 재단을 통하여 개설 후 목표액 80%가 저축되었다. 원금을 보존하고 이익금으로 모교 장학금을 적은 회원 숫자에 영향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원코자 시작한 일이다. 10년 넘게 적은 액수라도 매 해 적극적인 보람을 나누며 더욱 분발하고 있다.

4. 먼 거리를 봉사하고 매 해 북미주 지회 연합 총회 참석율이 지난 5~6년 간 계속 증가하였다. 타 지회에 모범을 보여 주신 연로하신 동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밴쿠버 연합회에서 반갑고 즐거운 만남을 기대합니다.



Vancouver 밴쿠버 지회

밴쿠버 지회에서는 올해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스태프들이 밤 늦게까지 모여 회의를 하고 있으며, 주소록을 만들어 여름야유회 때에 배포하기 위해 열심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화여대 동문회 가족 야유회

2011년 7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Hume Park에서 동문회 가족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동문들의 가족도 초청해서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고, 2부 순서로 스포츠 댄스 강사를 초청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야외에서 댄스를 함께 배우고, 게임 및 경품 추천 등을 하면서 동문간의 화목을 다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선옥 총장님 환영회

Canada-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행사 참석을 위해 밴쿠버를 방문하신 김선옥 총장님을 위한 환영회가 2011년 8월 6일에 있었습니다. 총장님 말씀을 통해 모교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며 동문 각자 소개 및 총장님과의 담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 및 칠순잔치

9월 24일 강은실 동문관에서 추수 감사 및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칠순을 맞으신 선배님들을 축하해 드리기 위한 생일축하 노래와 더불어 케이크 컷팅, 선물 증정이 있었고, 박혜정 부회장의 인도로 모두 함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시간을 가지면서 즐거운 동문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년모임

2011년 12월 18일 일요일 저녁 6시 힐튼 호텔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1부 순서로 이화 가족 음악회를 열어 소프라노 방장연 동문, 바이올린 박혜정 동문, 피리 윤계은 동문의 노래 및 연주를 듣고, 2부 순서로 모교 영상물 상영, 게임 및 경품 추천, 조경숙 동문님과 함께 싱어롱 시간을 보내고 라인댄스 등을 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멋진 송년 파티를 보냈습니다.



구정모임

2012년 2월 11일 11시 한인회관에서 떡국을 먹고 윗놀이를 하며 동문들과 함께 구정을 뜻깊게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tlanta 애틀란타 지회

일년이라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요사이는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밴쿠버에 계시는 동창 여러분들은 더욱 실감하시겠지요. 봄이 오는 계절에 겨울인 11월에 있을 총회 준비에 하루가 25시라도 모자랄 지경일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치루어야 할 과제이기에 더욱 실감이 납니다.

이런 큰 일을 통해 지회가 발전하고 더 나아가 이화가 발전하며 세계에 그 이름을 떨치는 여성대학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닐까요? 100여년의 세월을 어찌 무심하다 하겠습니까?

저희 애틀란타는 금년 1월에 골프모임이 발족되었습니다. 저희 이화골프모임은 2월 8일 수요일 Hamilton Mill Golf 코스에서 첫 모임을 시작했으며, 모두 16명이 참가한 이 모임에서 저희 이화 선후배는 서로 어우러져 4시간 30분에 걸친 라운딩을 끝내고 이어 식사를 하며 서로를 격려하였습니다.

현 회원은 20명이며 매월 두번째 수요일에 모입니다. 10월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배 골프 토너먼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각년에 발족한 이화동창 합창단은 1회 발표회를 보스턴 총회에 가서 여러분들께 보여 드렸고 잊지 못할 추억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20여 명이 참석할 놀라운 숫자에 더불어 분위기를 잡는데 큰 공력을 이루었다고 할까요? 금년에는 5월 첫 주에 (6일 주일 5시) 잔스크릭 한인교회에서 단장으로 계신 정소영 선배(영문 62)님께서(전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 직접 작사한 성가곡 봉헌 음악회에 출연합니다. 우리 합창단의 지휘로 수고하시는 이미애(성악 89), 반주로는 윤미영(피아노 84) 동창께서 하늘나라 불러 가신 (작사 정소영, 작곡 박재훈) 곡으로 봉헌 음악회에 특별 출연하여 우리 이화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회장: 정제니(영문 64) / 부회장: 김원숙(생미 68) / 총무: 정명옥(영문 81)

저희 지회는 매월 둘째 주일 오후에 모여 점심을 나누며 한달간 있었던 이야기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어떻게 건강 관리하며 살아 갈까를 의논하고 또한 주위의 기도를 요하는 동창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고 1년에 2번의 건강 강좌를 들으며 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회소식

금년 연말 모임은 부부동반 모임의 해라서 임원들은 호텔 예약, 사회자 등 크고 작은 일로 바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월 밴쿠버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며..



< 2011 보스턴 총회에 참가한 합성단 >

3월 23일

- 1. 선배라면 장학금 2명 결정
- 2. Holiday Community Service Project 의논
- 3. 지회 10주년 기념 행사 의논



Cincinnati 신시내티 지회

11월 3일 특별행사

이곳 Xavier University의 "Famous Speaker"의 프로그램에 하림 그룹 이상준 회장의 기업 경영 강의에 우리 이대 동문들이 초대 받았습니다. Xavier University 경영학과 과장 '박대우' 교수님은 우리 동문 지민정(사회학 85)씨의 부군이십니다.



2011년 11월 ~ 2012년 2월

신시내티 YWCA에서 "Empowering Women Artist Program, 2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에 25명의 예술가들 작품이 43일간 전시되었습니다. 우리 이대 동문 2분이 영예로운 선정이 되었습니다.

황은신(생활미술 70) - 추상화 2품
변혜경(조소 73) - Ladies Figure, Sculptures 3품



왼쪽부터 (김영채 회장, 변혜경, 황은신)

Houston 휴스턴 지회

휴스턴 지회에서는 12월 17일 박영일 선배님(약학 72)대에서 20명이 모여 각자 가져온 Christmas 음식으로 친교하고 1월에 있을 노인회 구정 떡국 잔치에 부를 노래를 연습하고 이대 국제재단 기금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기부금을 주셨습니다.

1월 31일에 휴스턴 인근에 사는 이대동창 22명이 직접 만든 많은 반찬과 떡만두국, 과일과 떡으로 휴스턴 노인회에서 120명의 부모님을 대접하고 크리스마스 때 준비한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불러 드렸습니다. 이규환 노인회장께서는 "이화여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효의 사상도 최고로 모두의 규범이 된다"고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휴스턴 이대 동창회는 15년째 매년 구정맞이 노인회 떡국잔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Cleveland 클리블랜드 지회

클리블랜드 지회는 1974년에 처음 설립한 이래 현재 약 70여 명의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이화 만남"이라는 명칭으로 동창회 회원들이 모여 친교와 유익한 정보를 나누며 동문 가족들의 경조사를 돕고 동창회 행사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14일에는 Shuhei Restaurant에서 만나 2012년도 회장을 맡게 되신 노희용 동문께서 1년의 행사와 만남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1월 21일에는 김진경 동문댁에 모여 2012년의 첫 "이화 만남"을 가졌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북미주 지회연합회 소속인 클리블랜드 지회의 이사 선출(당연직 이사-노희용, 선출 이사-이선희, 후원 이사-인명숙, 김영래)이 있었고, 올해에 지원할 후원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클리블랜드 지회에서는 이화 마스터 플랜에 일반분 약조금 달성 시까지 계속 지원하며 국제재단을 통해 설립한 동북 오하이오 지회 기부금인 장학 기금 및 클리블랜드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금(여성학대 보호기관, 장애 어린이 보호기관, 한국어학교, 한국 입학아 단체, 이화 총동창 북미주 지회연합회)을 매년과 같이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Vancouver 총동창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기를 권유하며 Canadian Rocky 여행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앞줄 왼쪽부터 (이선희, 노희용, 임영미, 김명미, 최화자) 뒷줄 왼쪽부터 (이경숙, 유용희, 인명숙, 김진경, 권민자, 남궁희영, 김지연, 김영래)

2월 만남은 29일에 Moxie에 모여 2월 회의와 친교를 가졌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모교의 총동창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동창회비 400,000원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북 오하이오 지회 이름으로 국제재단에 설립되어 있는 장학기금은 Helen Kim Society에 Pledge하여 목표하는 \$100,000을 달성하고, 그 후에 매 해 장학금을 보내기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외에도 클리블랜드 지회 회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

요성에 의해 이사 후임자의 규정과 의무에 관한 조항을 역대 회장단과 현 회장이 모여 상의한 후 다음 달 모임에서 안건으로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3월 모임은 28일 Otani에서 모여 북미주 지회연합회 회칙에 관하여 우리 지역 클리블랜드 지회에서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부록을 만드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4월 25일에는 이화 자매 학교인 Baldwin Wallace 대학에 모여 한국에서 와 있는 교환 학생들을 초청하여 점심을 나누었고 동창회에서 준비한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줄 왼쪽부터 (강수진(교환학생), 이희아(교환학생)) 뒷줄 왼쪽부터 (한정실(Baldwin Wallace 대학 수학과 교수), Trina Dobberstein(Vice President of Student Affairs), 김혜연(교환학생), 노희용(클리블랜드 지회장))

동문 소식으로는 노승보 동문(생활미술 85)께서 3월 4-24일 Beachwood Arts Council에서 후원하는 전시회 "Diversity Fest Two"를 Beachwood Community Center에서 갖습니다.



앞줄 왼쪽부터 (인명숙, 임영미, 백혜숙, 이경숙, Trina Dobberstein, 노희용) 뒷줄 왼쪽부터 (권민자, 남궁희영, 문상애, 유용희, 김영래, 김혜연, 이희아, 강수진, 한정실, 이숙자, 김명미)

또한 그동안 클리블랜드 지회에서 2006-2007년 2년 동안 지회장을 역임하시며 많은 힘조와 도움을 주셨던 김영래 동문(교육심리학 79)께서 타 주로 이사하게 되어 아쉬운 직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5월 모임은 23일 '미가'에서 만납니다.

지회소식

New York 뉴욕 지회

매 해 큰 행사인 47주년 연례만찬이 2011년 10월 23일 Fort Lee, NJ에 소개한 DoubleTree Hotel에서 1949년부터 2005년까지 졸업한 동문들과 이화 사위를 포함한 130여 명이 모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박문순(사학 66) 부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제1부에서는 장화인(교심 69) 이사장의 기도와 유덕향(약학 71) 회장의 환영인사가 있었다. 김선영(성약 95) 동창의 축가에 이어, 이정화(영문 70) 장학위원장의 장학금 수여가 있었으며, 교가로 1부를 마무리하였다.

Dinner 시간에 모교의 후배가 북미주의 "선배님들께 보내는 편지"의 Video 상연은 후배들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많은 동창들의 green이 아닌 마루에서의 골프 실력을 구경한 후 시작된 제2부에서는 아리랑 합창과 같이 깊이 있는 김명수 동창(무용 77)의 무용을 맛 보았다. 1986년 졸업한 여섯 동창들의 "SUNNY" 춤은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였다. 연례만찬의 즐거움 중의 하나인 Raffle 시간에는 많은 동창들이 후원해 주신 푸짐한 경품들로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참석하신 모든 동창들이 참여한 Dance! Dance! 시간은 대선배님들과 후배들 간의 춤을 통해서 격의 없는 만남의 장이 되었다.



< 2011 보스턴 총회 >

1월 7일
임진년을 맞이하여 이사들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새해 모임이 장화인(교육심리 69) 이사장 댁에서 있었다. 아늑한 분위기에서 장혜원(약학 50) 고문의 격려사에 이어 이사장, 회장의 인사를 포함한 하례식을 마치고, 맛있는 음식과 멋진 음악이 어우러지는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2월 13일
임길재(영문 33) 박사님이 101세 생신을 일주일 앞두고 2월 10일 오전 8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임박사님은 어려운 시대를 앞서 나간 개척자이자 한 세기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뉴욕 주 최초의 동양인

개업의이시며, 1964년대 뉴욕지구 동창회를 창립하는데 주역을 담당하셨고, 초대 뉴욕동창회 회장으로 수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30여년 동안 동창회 고문으로 계시면서 많은 후배들에게 모교 사랑의 귀감이 되신 분이시다. 임박사님은 1997년 이화여대에서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선정됐고, 2003년에는 이화여대 국제재단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2월 13일 Flushing, NY에 있는 중앙 장의사에서, 150여 명의 친지 및 동창들이 모여 임박사님이 출석하시던 뉴욕한인교회 장철우 담임목사님의 집례로 장례예배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향원(의학 51) 박사님의 눈물겨운 조사에 이어 모교 김선옥 총장님, Sharon Rader 이화국제재단 이사장님이 보내신 조사가 있었다.

모교에서는 정의숙 전이사장님, 윤후정 명예 총장님, 장명수 이사장님, 김선옥 총장님이 조화를 보내주셨다. 임종하시기 전까지도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 주신 임박사님은 2월 14일 발인 예배 후, Long Island, NY에 있는 Pine Lawn Cemetery 에 안치되었다. 임박사님의 유지대로 조의금은 사당하였고, 그 대신 많은 동창들과 지인들이 국제재단 임길재 장학금에 장학금으로 조의를 표하였다.

2월 25일
여섯 번째 북부 NJ 모임이 Englewood, NJ에 있는 FGS KCC 에서 18명의 동창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후, 이은주(무용 82) 동창의 지도에 따라 Line Dance를 가졌다.

2월 29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의 뉴욕 방문에 맞추어 동포 여성 간담회가 주 뉴욕 총영사관 리셉션 홀에서 많은 동창들을 포함한 뉴욕 지역 동포 여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 동창이신 강명순 국회의원도 참석하셨다.

2012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3월 13일 Manhattan에서 있었다. 장화인 이사장의 기도와 사회로 시작된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에 안미상(약학 66) 동창이 선출되었고, 회장에 박문순(사학 66), 부회장에 한국희(법학 80), 장학위원에 최성남(약학 70) 동창이 추천되었고, 이사회에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었다. 유덕향 회장은 지난 2년간 물심 양면으로 도와 주신 동창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여섯 군데의 지역모임이 계속 활성화되기를 부탁했다.

지난 해 10월 모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배라면에 \$10,000을 보냈고, 남은 \$17,000은 뉴욕동창회 지역 장학금에 넣을지 아니면 뉴욕동창회 기금으로 남길지는 5월 정기 모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3월 31일

신구 임원 간담회가 Fluhshing, NY에 있는 금강산에서 있었다. 구체적인 행사 계획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송미숙 동창의 지도에 따라 New York! New York! Line Dance를 하며 몸을 풀기도 하였다. 앞으로 2년 간 뉴욕동창회를 이끌어 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회장: 박문순(사학 66)
- 부회장: 한국희(법학 80)
- 총무: 김기령(영문 81) / 신창희(교육 86)
- 재무: 김정인(경영 91)
- 서기: 유진숙(정외 78) / 김성혜(서양화 85)
- 출판: 박영숙(경영 86) / 최영희(경영 89)
- 홍보: 주성남(불어교육 74) / 안혜숙(사회생활 80)



Denver 덴버 지회



<2011 보스턴 총회 - 정지연 회장 참석>

Pennsylvania 펜실바니아 지회

일년에 봄가을 두 차례 정기모임을 갖고 있는 Northeastern Pennsylvania 이대 동창회는 2012년 봄 모임을 지난 4월 1일에 김혜숙(영문 68) 동창대에서 고가제장으로 시작해 김삼선(가정 61) 총무의 2011년 가을 총회 때의 회의록 낭독에 이어 임경혜(지역 72) 회계의 간단한 회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동문은 약 16명 되는데 이번 모임에는 10명의 동문과 그 부근들이 참석했으며, 또 특히 이곳 한인 교회에서 수년째 목회활동을 하시는 전성임(기독학 70) 목사 내외까지 처음으로 동창회에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모임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의 사업계획은 새주소록 발간, 지역 한국전 참전용사회에 더 큰 관심두기와 연말 송년모임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Northeastern Pennsylvania Chapter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모임을 갖고 두 번의 정기모임 외에도 매 해하는 송년 Party, 가끔 갖는 하루여행 등 모든 동창들이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으로 친목하며 New York 국제재단과도 밀접,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연로하고 타계하여 숫자가 줄어들어 안타까운 이 지역 미국인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하여 금전적 지원도 하며 지역사회에 작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창들이 가정에서 또는 사회생활을 통하여 이화대학 졸업생의 일원으로 긍지를 갖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North Texas 북텍사스 지회

물방울 장애우 돕기 기금 마련 배꽃 나눔 바자회

2012년 1월 14일(토) 오전10시-오후5시에 텍사스 달라스 케롤튼 지역에 위치한 H-Mart 내 "열린문화센터"에서 북텍사스 지회 이화여자대학교 동문회 주최로 "물방울 장애우 돕기 기금 마련 배꽃 나눔 바자회"란 이름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1. 달라스 주민들과 이대동문들의 도네이션으로 의류, 아동용품, 신발, 액세서리, 각종 가정용품, 유기농 먹거리 판매
2. 물방울 장애우 후원회에서 설명회 코너 마련
3. 달라스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나와 무료 건강진단 코너 마련
4. 찾침운영: 간단한 음식과 차를 나누면서 동문들과 담소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5. 이대총동창회에서 보내 온 "학교 홍보 비디오 자료"를 참석하는 동문님들께 보여 드리는 시간 가짐

지회소식

- 6. 총동창회에서 구입한 “북마크”, “핸드폰줄” 판매
- 7. 경품추첨행사: 일정가격을 구매하는 분들께 경품추첨권을 줌. 경품들은 동문들과 지역주민들에 도네이션으로 준비 (건강냄비, 건강식품, 사우나 입장권, 쌀, 라면, 엑세서리 구매권 등 다양한 경품 마련)
- 8. 홍보: 지역신문에 총 5번의 광고를 실었고 총 50장의 포스터를 부착
- 9. 준비과정: 총 6번의 임원모임으로 준비
- 10. 참여: 동문 35명 부군 12명이 바자회 참석 및 협조, 수많은 달라스 지역 주민들 참여
- 11. 바자회 이익금은 달라스 지역에 있는 “물방울 장애우” 기관에게 전달



모교의 창립정신 아래 이화인의 하나됨을 되새기고 모교 정신 중에 하나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물방울 장애우 돕기 기금마련 배꽃 나눔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 북텍사스 지회 이대 동문회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과 지역사회에 이대 동문들의 섬김의 리더십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보람과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북텍사스지회 이대동창회가 열려

2012년 3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수라 소연회장”에서 2012년 북텍사스 지회 이대동창회가 열렸습니다. 동문들 20명과 이대사위 6명 등 총 26명이 참석해서 너무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고 싶으셨지만 갑작스러운 개인사정과 겹치는 일로 인해 불참하셔서 참으로 서로 안타까워 했습니다. 또한,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많은 동문님들께서 동창 연회비를 보내주시면서 내년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시며 격려

해 주셨습니다. 동창회는 오후 6시부터 이경희, 이가영 동문들의 수고로 등록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기간 동안에 “사인 받기” 게임을 통해서도 많은 동문들과 인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리 부회장의 사회로 6시 30분부터 1부 동창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숙재 회장의 인사와 강정숙 동문에 기도 후에 너무나 풍성하고 맛있는 저녁만찬을 부패로 가졌고, 또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너무나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에는 무용과 이현정 동문께서 한국무용으로 참석한 동문들을 감동시키셨고, 이경희 동문의 “웃음요가”를 통해 정말 유익한 건강 정보를 얻게 되었으며 모처럼 정신없이 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많은 동문님 시절에 이대를 배경으로 찍는 사진들을 가지고 와서 옛날을 추억했고 이대가 놀랍게 발전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인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부에는 동창회 회의를 이숙재 회장이 진행했고 4부에는 사행시 발표 및 시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행시 주제는 “이화사위”, “이화사랑”, “이화동문”이었는데 너무나 멋진 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가 합창”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내년에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Orlando 올랜도 지회

1992년도 섬유예술과를 졸업한 신혜 동문이 올랜도 소재 CREALDE SCHOOL OF ART에서 1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신혜 동문은 현재 이 학교의 faculty member이며 다른 7명의 교수진과 함께 작품 전시를 하였습니다. 이곳 동문들은 4월 10일에 동창 모임을 가지고 전시회장을 방문하여 작품 감상을 하였습니다.



Ottawa 오타와 지회

2011 송년모임

뜻깊은 성탄절 보내셨는지요.
 오타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지난 27일 눈이 펄펄 내리는 중에 이화 송년 모임을 다녀오니, 이제야 비로소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이 실감납니다. 아직도 마음은 새 결심을 하던 2011년 벽두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오타와를 벗어나 여행 중인 분들과 각종 연말 모임들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 자리하지 못한 동문들을 아쉬운 마음으로 떠올리며 모인 우리들은 봄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식탁에 둘러 앉아 지나 온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대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지나왔습니다. 꼭 가리라 계획했던 길, 피해야고 싶었던 길, 나와는 상관없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예기치 못한 길을 걸기도 했고, 긴 터널 속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을 달려 보기도 했을 것이고, 날마다의 험살이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회복과 축복의 길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더러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나 온 길이지만 돌아켜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감사할 수 밖에요.
 그 길을 지나며 우리 걸을 지나갔던 풍광들을 떠올려도 보고, 좋은 추억들을 나누며 밤이 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모든 동문들과 그 가정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한 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Seattle 시애틀 지회

2012년 1월 7일에 박미경 회장 자택에서 신년 모임을 가졌다. 동문 27명이 모여 떡만두국과 빈대떡 등 푸짐한 음식으로 신년을 축하했고, 유양수, 유영희 동문의 환갑도 같이 축하했다. 이어서, 신형 개관웃놀이로 웃음바다의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신년을 맞이하며, 앞으로 더욱 더 천목을 도모하며 즐겁고 보람된 동문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2월 12일에 탁상희 동문 자택에서 댄스강습을 가졌다. 동문 15명이 모였고, 체육과를 졸업한 김명혜 동문의 지도로 신나는 라인댄스와 왈츠로 각자의 출실력을 발휘했고, 건강체조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월 25일에 신라 식당에서 월례모임을 가졌다. 동문 15명이 모였고, 건강교육과를 졸업한 조선용 동문이 노후대책에 관한 주제로 최대한의 노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와 매디케어에 관한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3월 4일부터 김선옥 총장님께서 시애틀을 방문하셨으며, 채기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과 김자원 비서가 수행원으로 동행했다.



3월 7일에는 시애틀 지역의 34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마지막 노레스토랑에서 김선옥 총장님을 위한 환영 만찬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사랑해 총장님으로 노랫말을 바꾸어 "사랑해" 합창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김총장님은 시애틀 동창을 포함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19만명의 동문들과 이화 가족의 네트워크가 있어 이화는 항상 든든하다고 하시며 모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셨다.

3월 24일에 조승희 동문 자택에서 월례모임으로 요리강습을 했다. 조승희 동문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네가지 요리를 즉석에서 선보였고, 13명의 동문들이 맛있는 요리로 즐거운 점심을 나누었다.

지회소식

4월 19일에 아카사카 식당에서 정인숙 동문의 부군, 변재준 가정을 모시고 건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제는 Living Will과 치매에 관한 내용으로, 동문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생활의 지혜를 제공해 주었다.

동문회의 특별 활동

- 1) 문화부에서 4월 16일 시애틀 베나로야 홀에서 있는 정명훈과 서울 필하모니의 음악회에 15명의 동문이 참석해서 음악 감상을 했다.
- 2) 클래식감상반은 2월 첫째주부터 3월 22일까지 8주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유신열 동문 자택에 모여서 약 100여곡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문화 생활을 즐기는 기회를 가졌다.
- 3) 골프반은 3월 19일부터 매주 월요일 골프를 즐기고 있다.
- 4) 서예반은 매주 수요일에 모임을 갖고 서예에 열중하고 있다.
- 5) 문예부는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매달 동문회 모임에서 책을 빌려 보며 마음의 양식을 나누고 있다.
- 6) 시애틀 지회 장학기금마련으로 9월에 음식바자회를 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김, 된장, 대추 등을 매달 주문을 받아 동문들에게 제공하며, 그 이익금으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고 있다.

곧 이어서 Abba의 "Dancing Queen" Lip Sync 특별 출연으로 연말파티가 흥겹게 시작되었다. "1960년대 스타일 연출하기"라는 파티의 테마에 맞추어 많은 동문 및 사위님들께서 그 시대를 연상시키는 갖가지 의상과 머리 모양을 하고 오셨고, 각각 무대에 올라 뽐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뽑은 심사위원 다섯 분의 재미있는 심사평을 들은 후에 최종 우승자 5명(모두 1등)에게 왕관을 씌워 주며,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곧 이어진 댄스 시간에도 분위기가 이어져 모든 분들이 흥겨운 시간을 가지신 후에 아쉬운 마음으로 내년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이 날 오신 동문들에게는 새로 발간된 동문 주소록, 모교에서 온 빨간 수첩과 선배라면 메모지를 봉투에 넣어 함께 배부했다.

정기 총회 및 고 임길재 박사님 추모 예배

2012년 3월 5일 저녁 7시 더프린 서울관에서 4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정기 총회가 열렸다. 개회선언과 고가 제창에 이어 전년도 서기보고 및 회계보고,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새 임원진 소개에 이어 공연회(생미 71)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Toronto 토론토 지회

연말모임

2011년 11월 20일 오후 5시부터 RIVERA PARQUE에서 129명(동문의 남편들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정명덕 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총회를 시작하였다. 이 총회에서 문아연(사회 72) 동문이 29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본교 총동창회에서 보내 주신 슬라이드 "선배님들께 보내는 편지"를 보며 닳익은 교정의 모습과 편지 낭독을 읊으면서, 잠시 동안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정규적인 행사(햇볕회, 정기총회, 여름 아유회, 연말 파티) 외에 동호회(이화 글벗모임, 사진모임, 토요일견기 모임, 선시인 봉사회, 요리교실, 정원관리, 문화체험, 골프교실, 이화노래교실 등) 및 Web Site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선배라면'(당신이 선배라면 후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월 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자는 캠페인) 이어달리기 1주자로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정기총회에 이어 이화의 거목이시고 '자랑스러운 이화인'이시며, 국제재단 창립이사셨던 고 임길재 박사님 추모예배가 진행되었다. 문아연 회장의 고인에 대한 약력 소개에 이어, 이(최)성학(간호학 59) 동문이 '가까이서 지켜 본 임 박사님의 삶'이라는 주제로 임박사님을 회고했으며, 최(조)경자(영문 63) 독사님의 기도로 추모예배를 마무리하였다.



Local News

햇불회 모임

2012년 2월 17일 문경순(영어교육 68) 동문 맥에서 25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첫 햇불회 모임을 가졌다. 찬송과 기도... 조경자 목사님의 말씀 선포 순서로 진행된 이번 모임에서 조 목사님은 이 날 읽은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나타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정성으로 제자(후배)를 키우고 사랑한 엘리야와, 스승(선배)의 망토를 위함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뜻을 이어간 엘리사처럼 선후배간에 멘토십을 주고 받는 아름다운 동창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권면하셨다. 예배 후 맛있는 비빔밥과 디저트를 먹고 윤미경(사회사업 93) 동문의 사회로 게임도 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다음 햇불 모임은 4월 19일 김정인(기독 94) 동문맥에서, 김인자(사학 62) 동문의 부근이신 유계신 박사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을 예정이다. 또한 모임 전에는 컴퓨터, 아이폰, 스마트폰 사용법 강좌가 진행되며, 2부 순서로 이화노래 동호회 주관 "노래 교실"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호회 모임

6월-8월 매주 토요일마다, Edward Garden 산책 모임을 가졌다. 때로는 유인희(체육 56) 선생님께서 동참하시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체조를 하며, 산책 후에 아침식사를 같이하기도 하며, 건강증진 및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Art Gallery of Ontario (AGO) 관람은 6월 15일, 11명이 참석하였다. AGO에서 Volunteer로 봉사하는 공영회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건축가 Frank Gehry가 증축 설계한 역사 깊은 AGO건물의 내부 구석까지 둘러 본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답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Golf 모임은 6월부터 매주 금요일 7-8명 Golfer 동문들이 유활란(체육 95) 동문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왔다. 9월 17일 Westview Golf Course에서 열린 대학 대학 친선 골프대회에는 6명이 참가했다. 14개 대학에서 총 99명이 출전한 이날, 우리 이화대학은 단체 여성부문 1위는 물론 유화란(체육 95) 동문이 개인여성 1위와 Nearest상을, 그리고 유명숙(경영 74) 동문이 개인여성 2위를 석권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이화의 긍지를 나타냈다.

선사인 봉사회

지나가던 행인조차도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했던 사마리아인의 선한 마음을 실천하고자 만들어진 선사인(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모임) 봉사회가 3월 26일 한가족 양로원에서 첫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월 1회 봉사를 원칙으로 신영봉(교육공학 69) 동문이 중심이

되어 펼쳐진 이 날 행사에는 10명의 동문들이 참가하였다. 과일을 준비해서 김명천(기독교학 65) 동문이 운영하는 Retirement Home인 한마음선교회를 방문하여 입주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민들레를 다듬어 드리면서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Arizona 애리조나 지회

애리조나 지회는 화기애애하게 자주 모이면서 철새 따라 오시는 은퇴하신 선배님들과 아주 이사 오시는 동창들을 반갑게 만나고 있다. 또한 겨울에 여행 오기에 매우 좋은 따뜻한 지방이고 하이텍의 근간을 이룬 회사들을 중심으로 한인의 수가 늘고 있다. 호텔과 골프 리조트 시설이 좋은 이곳에 조수현 이사장이 방문을 하여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S. California 남가주 지회

1953년에 설립된 남가주 동창회는 2012년부터 2년 간 동창회를 이끌어 갈 새 임원진, 이사진을 출범시켰다. 임원진은 회장 김정순(간호 75), 부회장 장계원(도서 76), 장경혜(기약 75) 등 32명으로 구성되었고 이사진은 이사장 박화자(간호 66), 부이사장 문금숙(국문 63) 등 26명의 이사들로 구성되었다.

지회소식

2011년 12월 11일

정기총회 및 연말 파티가 다운타운의 Sheraton Hotel에서 개최되어, 재정보고와 장학금 수여, 부서 소개와 신입 김정순 회장, 박화자 이사장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1부 총회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하였고, 이어서 2부 순서인 이화인의 밤이 시작되었다. 게임과 댄스, 이화가요제에 이르기까지의 흥겨운 분위기는 이화라는 이름으로 만난 선후배와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다. 이 자리에는 동창들과 이화의 사위들, 130여 명이 참석했다.

3월 9일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제 1회 임원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는 5월 19일 남가주 동문합창단 정기공연, 6월 2일 Huntington Library 나들이, 9월 총장배 골프대회, 10월 건강/재정 세미나, 11월 1-4일 Vancouver 북미주 지회연합회 참석, 12월 16일 정기총회 및 송년 파티, L.A. 회원 중강을 위한 포인트 제도 도입과 연말 포상,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창회 근조기 마련, 남가주동창회 60년사 편찬을 위한 계획 수립, 남가주 동창회 모임처 마련안 등의 2012년 행사 및 김정순 회장의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동창회는 앞으로 이사회를 거쳐 구체적인 토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사업계획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이 모임에는 2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하여 동문들과의 돈독한 관계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3월 20일

부여나파 시간에서 제 2회 임원회가 열렸고 회장 및 9명의 임원이 참석했으며, 동창 회원 명단 Update, 회원 확보에 대한 Point 제도, 동창회 재정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3월 24일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2012년도 상반기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동창회에서 상정한 모든 안건이 통과되었고 행사 및 사업계획이 인준되었다. 곧 이어 전년도 회계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서성애(약대 75) 동문이 새 이사로 영입되었으며, 동창회 근조기를 마련하자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부이사장 겸 서기이사에 문금숙(국문 63) 동문, 회계이사는 김주경 동문이 맡기로 했다. 18명의 이사들이 참석했다.

4월 16일

남가주 전역에 살고 있는 1300여 동창들에게 2012년 4월 동창회보가 발송되었다. 동창회보는 일 년에 두 번, 4월과 11월에 발송된다.

5월 19일

남가주 동문합창단은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제 9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박신실(성악 93) 동문의 지휘와 구교전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30여 명의 단원들이 '대영광송', '하나님의 어린양', '청산에 살



< 연말 정기총회 >

Local News

으리라', '아 목동아' 등의 성가와 가곡을 열창하여 400여 명의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특히 Messe Brevis에서는 Karis String Quartet의 반주와 구은정(성악 98), 서정은(성악 70) 동문의 곡 중 솔로가 있었다. 또한 주희정(기악 08) 동문의 피아노 독주가 있었고, 청소년 합창단(California Children's Choir)이 찬조 출연하여 '시월의 어느 멋진 날들' 등 세 곡을 불렀다. 다 같이 제창한 본교 교가는 학창 시절을 상기시키며 참석한 동문들을 감동에 젖게 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친교실에서 동창회 측에서 준비한 다과를 나누었다.

Kansas 캔사스 지회

1년에 4번 모임 가지며 친목 다져

Kansas City 동문회는 2월 11일 "초가" 식당에 모여 빨간 동창회 수첩을 나누어 가지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모임에서 매년 끝순서로 부르는 "교가"의 가사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모임은 "교가와 교표" 그리고 "이화 학당에 관한 학교 역사와 그 당시 신문에 난 재미난 기사"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지회

지회 필라델피아 지회는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회 동문들은 무엇보다도 동문들 간의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 관리를 위해 삼바 운동 시간과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고 또는 다친 후에도 골프를 잘 칠 수 있는지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시고 배우기도 하였고, 봄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꽃꽂이 강좌 시간도 갖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Social Security Benefit에 대한 강좌시간과 우리 한국인의 긍지를 위한 전통문화와 유산에 대해 전문인을 모시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취미 생활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른 동문들의 전시회 등도 참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배움의 터전을 주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에 이화인의 긍지와 감사사가 늘 있습니다.

St. Louise 세인트루이스 지회

지회 지회는 4개월에 한 번씩 정기 회의로 모이고 매달 세번째 수요일에 LuLu Chinese Restaurant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나누며 친목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원으로는 서기 최길자 동창, 회계 이수자 동창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Portland 포틀랜드 지회

지난 2012년 4월 10일 아담하고 이쁜 이태리 식당에서 오랫동안 동창들이 모였다.

김회장은 "부부를 위한 따뜻한 지침", "노후를 즐겁게 보내는 법" 등 좋은 글을 준비하여 나누어 주었으며, 안전으로는 좀 더 우리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되는 것과 숨은 동창을 찾아내자는 것이었다.

그 실천으로서 다음 모임을 현지 신문에 공고해 보자는 의견에 모두 찬성하였다.

다음 모임은 8월의 끝자락에 만나기로 하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헤어졌다.

공시 사항으로는 김미진 회장이 5월 4~6일 삼일 간 오레곤 도 자기 협회전 30주년 행사에 참여한다.





Washington D.C. 워싱턴 디씨 지회

워싱턴디씨 지회(동창회)는 1957년에 발족해서 최정림 동문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였고 이화여대 소개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에 속하고 약 35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 2011 연말파티 >

워싱턴디씨 지회는 동창회 회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음과 같은 행사를 거행하고 또 준비 중에 있다.

4월 7일 The Johns Hopkins 대학 김미영 박사를 모시고 건강 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강의를 있었고 특히 “당과 소금” 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강의는 듣는 이들의 각오를 새롭게 하였다.

5월 13일 디씨지회에선 Walkerthon(걷기대회)이 있었다. 30여 명이 참석해서 좋은 날씨에 홍보도 받고 피크닉을 즐겼으며 보스턴에서 조수현 이사장도 참석했다.



5월 19일 동창회는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병하는 동문들께 도움의 손길을 펴며 조기진단과 건강한 식생활을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Breast Cancer Walk-A-Thon” 겸 야유회를 Great Falls에 위치한 Riverbend 공원에서 가졌다. 45명의 동문과 친지들이 참석하여 Potomac 강을 따라 걷고 점심을 나누며 뜻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를 통해 모인 성금은

National Breast Cancer Foundation에 기부하고 일부는 이 기금을 늘려서 동창과 한인여성들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6월 16일 동문 손옥윤을 모시고 자산관리 및 재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동문은 CPA, MBA, 또 Certified Financial Planner 면허증 소유자로서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하는 가장 최근의 미국 세법 및 노후를 위한 준비 등 많은 정보를 주실 것으로 기대된다.

9월 중 동창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으로 Fairfax County 소개 가정폭력으로 격리된 Shelter를 방문하고 점심봉사를 하며 겨울옷과 어린이 장난감을 기증할 예정이다. 오래 지속되는 경제 침체로 인해 가정 불화와 구타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역에 동창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바란다.

12월 1일 동창회 2012년 총회를 우래옥에서 갖는다. 이 총회에서는 공천위원회에서 천거된 2013년 회장을 인준하고 동창회 활동보고와 재정보고 및 송년 파티가 열릴 예정이며 워싱턴 디씨 지회는 2013년 10월 24일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를 주관하게 된다. 모교 총장님, 총동창회장님과 북미주 30지회에서 약 300여 동문들이 참석하게 되는 이 총회는 영광스러운 행사이며 동문들의 사랑을 나누고 아름답고 유서 깊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2012년 38대 회장 및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왼쪽부터 윤향근 회계(교육 82), 이정희 사회사업부장(종교음악 89), 유연담 이사장(정외 62), 최영 총무(교육 75), 윤순구 실행이사(기약 61), 이영주 감사(간호 72), 최숙자 회계이사(도서 69), 김지완 서기(도서 89)
가운데 왼쪽부터 오혜경 부회장(영문 72), 김정현 실행이사(정외 59), 이명지 회장(영문 67), 김정자 감사(가정 62)
이외에 민원기 문화부장(외국어 68), 이미영 홍보부장(사생 85), 문남희 음악부장(성악 80), 맹행자 Hiking Coordinator(사회 66), 최윤희 Web Consultant(전산 85), 이소영 법률고문(신방 78)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Local News



<연말 파티와 총회를 한 워싱턴 디씨 지회>



은 앞으로 2년 동안 북가주 지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동문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조미정 회장은 현재 CPA로 베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며, 지난 4년 동안 동창회에서 서기(2008-2009)와 총무(2010-2011)로서 봉사했다. 또한 미국으로 입양 온 한국 아이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마련한 기금 예뻏해지는 한국 입양아 행사에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부탁했다.

3월 24일 Ohlone College (Smith Center), Fremont, CA에서 보자기 선물포장 배우기와 Fundraising Concert for Korean Adoptees / 오후 4시 '나도 한국을 알고 싶어요' 입양아 행사를 위해서 후원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민영 동창(영문 97)은 이화여대 재학 중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왔고,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졸업 후 근무를 하다가 결혼하고 베이 지역으로 와 살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부터 입양에 관심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했고, 미국에 와서도 꾸준히 입양 가족들이 한국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베이 지역에 오니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타까웠었는데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이 지역에서도 입양가족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리는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자리잡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북가주 지회는 선물 꽃바구니와 선물로 찬조했으며 입양 부모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4월 모임은 Union City에서,

5월 모임은 San Jose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2부 순서에서는 경희 한의원의 이태업 원장님께서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요령에 대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 2011년 12월 연말파티 >

N. California 북가주 지회

북가주 지회는 지난 보스톤에서의 북미주 지회연합회에 다수가 참석하여 뉴햄프셔와 메인주의 여행을 했으며,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총장님, 총동창회장님과의 만남을 가졌고 토요일 탈렌트쇼에서 대상을 받았다.



< 2011 보스톤 총회 발렌트쇼 대상을 받은 북가주 지회 >

3월 3일 총회에서 2010-2011년 조성연 지회장을 이어 이화여대 북가주 지회의 신임회장으로 조미정(정외 86) 동문이 총회 참석 전화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선출되었다. 신임 조미정 회장

2012 북미주 지회장 명단

주	지회명	지회장	전공	포럼	주	지회명	지회장	전공	포럼
KS	Kansas	강명숙	제약	74	MO	St.Louis	양혜자	교심/석사	74
Can	Vancouver	강유순	약학	69	MI	Detroit	오미형	식품영양	77
IL	Chicago	구은서	보건	73	NY	New York	박문순	사학	66
NV	LasVegas	권영애	약학	64	Can	Edmonton	윤애진	특고/석사	78
FL	Orlando	김광혜	물문	63	NC	N.Carolina	윤종화	생물	82
TX	Houston	김명지	의학	82	RI	Rhodelsland	이길자	의학	66
OR	Portland	김미진	도예	79	WA	Washington D.C.	이명지	영문	67
AK	Alaska	김수연	신문방송	86	TX	N.Texas	이숙재	무용/석사	85
TN	Nashville	김애경	의학	75	Can	Ottawa	이연숙	간호	72
PA	Allentown	김여흠	영문	54	MN	Minnesota	이은영	기정관리	71
OH	Cincinnati	김영채	영문	59	HI	Hawaii	이정환	영문	85
CA	S.California	김정순	간호	75	Can	Montreal	이채화	무용	76
PA	NorthEast	원옥희	의학	70	CO	Denver	정재연	영문	68
MA	Boston	김희선	법학	77	MI	Lansing	조미영	동양화	85
MD	Baltimore	노선희	피아노	72	GA	Atlanta	조성숙	가정	64
OH	Cleveland	노희응	약학	82	CA	N.California	조미정	정치외교	86
Can	Toronto	문이연	사회학	72	NY	Buffalo	조재걸	약학	61
WA	Seattle	박미경	극문	71	AZ	Arizona	조한숙	전산	89
PA	Philadelphia	남광선	식품영양	76	CA	San Diego	조호은	교육	71

< 2011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보스턴) >



가 볼만한 밴쿠버 명소들



스탠리 파크 (Stanley Park)



다운타운
Downtown

캐나다 플레이스 (Canada Place)



휘슬러 피크투피크 (Whistler PEAK 2 PEAK)



휘슬러
Whistler

휘슬러 블랙컴브 (Whistler Blackcomb)



린밸리 (Lynn Valley)



모레인 호수 (Moraine Lake)



피라미드 호수 (Pyramid Lake)

록키산맥
Rocky Mt.



록기 (Rocky Mountain)



빅토리아 부처드가든 (Victoria Bulchert Gardens)

부처드가든
Bulchert Gardens



2012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스케줄 Ewha 2012 Convention Timeline

Nov. 1 (Thursday)

3:00pm	호텔 등록 시작
8:00pm~10:00pm	북미주 지회연합회 이사회 (시간과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9:00pm~11:00pm	친교의 시간(가라오케)

Nov. 2 (Friday)

7:00am~7:30am	Exercise
7:00am~8:30am	아침식사
8:30am~9:20am	합창반
9:40am~5:30pm	Shannon Falls, Whistler 관광
6:30pm~9:30pm	총장님과의 만찬, 기념촬영, 지회소개
10:00pm~12:00am	친교의 시간(가라오케)

Nov. 3 (Saturday)

7:00am~7:30am	Exercise
7:00am~8:30am	아침식사
9:30am~11:00am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
11:30am~4:30pm	밴쿠버투어(Stanley Park, Downtown, Lynn Valley Suspension Bridge 등)
6:00pm~11:30pm	Grand Banquet, 기념촬영, 지회 Talent Show
10:00pm~12:00am	친교의 시간(가라오케)

Nov. 4 (Sunday)

7:00am~7:30am	Exercise
7:00am~8:30am	아침식사
8:30am~9:30am	예배
9:30am~	총장님과의 대화, 기념촬영 및 작별인사



2012년 11월 1일(목) ~ 4일(일) | 캐나다 밴쿠버



EWHA 2012 Registration Form 참가 신청서 (10월 10일 마감)

Name	한글	English
졸업년도	졸업학과	동창회 지회명
Address		
Phone	Home	Cell
E-mail		
참가인원	명	
	참가회비 내역	비용 수
Date	등록비	\$20
	2 Day Vancouver-Whistler Tour Package	\$150
Friday Nov. 2	Dinner with President	\$100
Saturday Nov. 3	Grand Banquet	\$100
TOTAL		

참가 신청비는 개인 수표나 Money Order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요.
 EWHA Vancouver 2012 (Eunice Oh),
 #100-504 Cottonwood Ave., Coquitlam, B.C. V3J 2R5 Canada
 Payable to : EWHA Vancouver 2012

문의 : 604-939-8311 (회장:강(오)유순)
 604-817-1779 (부회장:박혜정)
 E-mail : euniceoh@hotmail.com

호텔숙박 안내 **숙박비: 2인1실 \$104 / 3인1실 \$134 / 4인1실 \$164 (Tax 별도, Hot Breakfast 포함)**

Hotel Toll free line at **1-888-744-5866** Locally at 604-438-1200
 Central Reservation at 1-800-HILTONS(445-8667) (10월 10일 기한 엄수)
 Hilton Hotel Metrotown (6083 MacKay Ave., Burnaby, Canada)
 * 행사 전후 1주일은 같은 가격입니다

관광 문의 **파고다 여행사: 강 은 아 ('90 졸업) Cell: 604-839-5329 Toll Free: 1-888-931-0026**

- 1) 록키 3박4일 오전 7시 출발 (10월29일~11월1일) 2인1실 \$299 / 3인1실 \$279 / 4인1실 \$259
 (포함: 식사 10끼, 호텔 / 불포함: 옵션, 팁) * Hilton Hotel에서 출발
- 2) 빅토리아 투어 오전 7시 출발 (11월1일) \$90

한인 콜택시 **엔젤 라이드: 604-518-0805 / 604-763-1318** **해피랜드 관광버스(55인 이상): 604-431-0748 / 604-306-4926**
밴 익스프레스(7/15인승): 778-321-8259(밴쿠버) / 070-7375-8444 / KakaoTalk: 24airportpickup

발행인 강유순 • 편집인 박혜정, 배은영 • 편집 디자인 Joule Kim • 인쇄 프린텍(Printek)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EWHWA WOMANS UNIVERSITY LIM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100-504 Cottonwood Ave., Coquitlam, B.C. Canada V3J 2R5
T. +1-604-939-8311 F. +1-604-931-0912
ewhain-na.com | euniceoh@hotmail.com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WA WOMANS UNIVERSITY, INC.
Since 1970

- :: 110여개의 개인장학금
- :: 28개의 북미주 각 동창지회 장학금
- :: 3개의 단과대학 발전기금
- :: 이화해외동창기금
- :: 기타 건축기금, 추모기금 등 다수
- :: 헬렌킴 소사이어티

이화여자대학교를 위한 후원기관인 국제재단은 미연방정부의 501(c)(3)로 등록되어, 미국 내의 모든 후원금은 전액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다양한 자신의 출신 학과를 위한 장학금, 부부 성함으로 이루어진 장학금 등 여러가지 장학금을 통해 이화 후배들의 학업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 기금, 영구적 기금, 유언을 통한 사후 기부 등 자세한 기금 종류와 후원 방식은 국제재단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475 Riverside Drive Room 1505, New York, NY 10115
T. 212.864.5759 / F. 212.864.2552 / ewhafdn@aol.com
www.ewhafoundation.org

